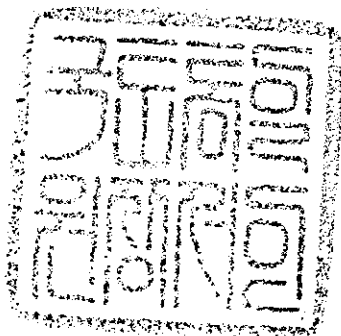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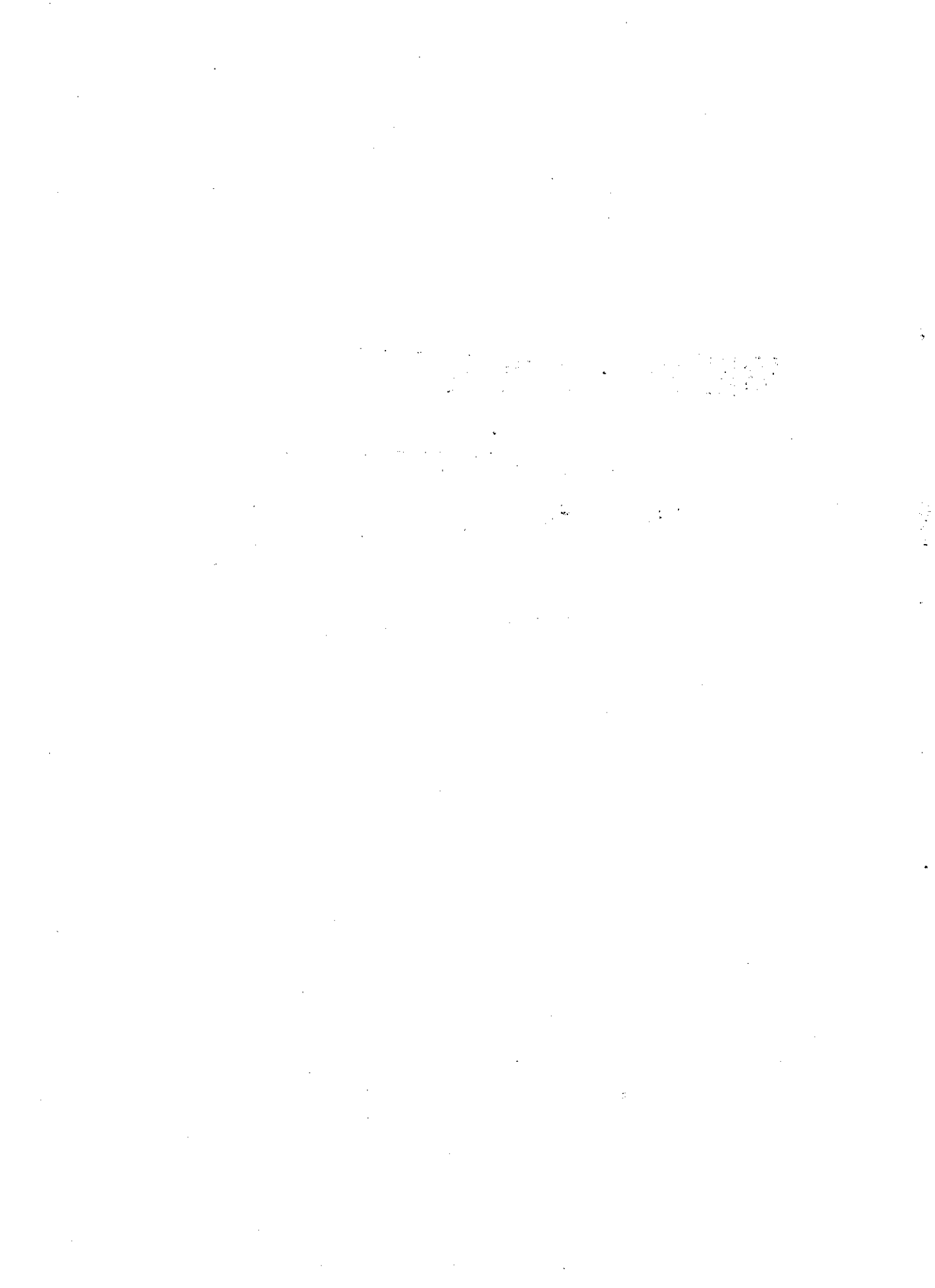


# 韓國統一에 관한理論的檢討

— 西歐學者들의 客觀的 研究를 中心으로 —



國 土 統 一 院



## 序 文

本院 政策企劃室은 우리나라 統一問題를 취급한 國內外的 研究活動에 恒常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緊要하다고 判斷되는 資料는 이를 入手하여 統一政策資料로 油印, 活用하고 있다.

本資料輯에 收錄된 세 編의 論文은 各已 南北間에 對話가 열린 以後에 作成된 것으로서 韓國統一方案에 관한 客觀的 研究라는데 特色이 있다.

「노르웨이」國際平和研究所長 「요한 갈통」氏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웨덴」의 「군나·미르달」과 함께 北歐學者로서는 世界的 名聲을 지닌 大學者이다. 氏는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에 큰 感銘을 받고 北歐五個國의 聯合理論을 韓半島에 적용시켜 統一의 可能性을 究明코자 한다. 그러나 氏는 北韓의 對南戰略이 7.4 共同聲明에 의해 解消되었다고 前提했기 때문에 論文全體의 훌륭한 分析性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同意할 수 없는 몇가지 問題를 提起했다. 即 7.4 聲明 第二條를 南北間의 有效한 平和協定으로 理解하고 따라서 統一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추진할 南北關係 展開를 誘導키 위한 迂回的 手段으로서의 南北韓의 「유엔」加入을 所望스럽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指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南北韓이 統一을 向한 聯合的 交互作用過程에서 收斂理論의 適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共存과 「유엔」加入反對라는 論理的 矛盾을 느끼나 外國人으

로서 7.4 성명을 論理의 前提로 하여 統一方案을 검토했다는데 意義를 부여치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 紹介되는 梁性喆氏의 機能主義的 統一接近과 吉榮煥氏의 機能主義 및 國際政治의 統合理論的 統一接近論은 그 觀點과 基調가 大略 비슷하다. 그러나 論文作法이 美國式 合理主義와 論理主義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南北關係의 歷史的 現實을 捨象하는 傾向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南北關係 改善의 代案으로 機能主義的 接近을 正當化한 點은 卓見이 아닐 수 없다.

全体的으로 볼 때 本資料輯에 收錄되는 세 編의 論文은 論理展開 및 主張提示에 우리로서 提起할 異論이 없는것은 아니나 단계적, 기능적 및 점진적 통일접근에 基調上의 一致를 보인점은 一應 政府로서 肯定的으로 受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資料輯이 이 分野의 研究從事者들에게 널리 活用되기를 기대한다.

1973年 11月

政策企劃室

## 目 次

|                              |    |
|------------------------------|----|
| ○ 聯合的 交互作用으로서의 統一接近方案 .....  | 5  |
| 第1章 序 論 .....                | 7  |
| 第2章 國際潮流에 있어서의 韓國의 位置 .....  | 10 |
| 第3章 統一: 몇가지 一般的 考察 .....     | 19 |
| 第4章 韓國統一을 위한 構想 .....        | 28 |
| 第5章 平和共存理論과 韓國의 現況 .....     | 42 |
| ○ 機能主義的 統一接近方案 .....         | 51 |
| 概 要 .....                    | 53 |
| 第1章 序 論 .....                | 54 |
| 第2章 韓國問題: 5個의 共通的 誤謬 .....   | 56 |
| 第3章 獨立과 分斷: 2背景 .....        | 63 |
| 第4章 韓國統一을 向해: 機能主義的 方法 ..... | 68 |
| 假定 .....                     | 69 |
| 統一의 手法: 『並行』方式 .....         | 71 |
| 第5章 結 論 .....                | 77 |

|                                     |     |
|-------------------------------------|-----|
| ○ 機能主義 및 國際政治的 統合理論에 의한 統一接近方案..... | 89  |
| 第1章 序論.....                         | 91  |
| 第2章 國際統合論의 妥當性 및 適用性.....           | 94  |
| 第3章 國家統一의 機能的 接近方式.....             | 99  |
| 第4章 新機能主義와 그適用.....                 | 102 |

聯合的 交互作用으로서의  
統一接近方案

요한 갈통

本論文은 1972년 8월 14-17일까지 日本京都  
大學에서 열린 韓國統一에 관한 國際會議에서  
[Divided nations as aProcess -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 The Korean Case]  
로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University of Oslo 教授 Johan Galtung  
이 發表한 것이다.

1

1

1

1



## 第 1 章 序 論

### — 몇 가지 概念 定義 —

分断民族 및 分断国家에 관한 理論을 韓국의 境遇에 適用해 보  
고자 한다. 우선 “民族”과 “国家”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  
義해 둔다.

民 族 : 여러가지 文化的 特徵, 특히 言語와 一部の 歷史를 같이 하  
여, 또한 통상 人種的인 類似性을 갖는 사람들의 集團.

国 家 : 对內外的인 窮極的 權力の 独占 (軍事的 機能), 外交政策의  
独占 (外交的 機能) 및 財政政策의 独占 (財政的 機能) 이라는 3 가  
지 機能을 行使할 政府를 갖는, 통상 接統된 領土.

실제에 있어서 財政的 機能은 平価切上과 切下, 貿易, 海外 投資  
와 投資誘致등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정도 外交政策的인 側面을 갖  
는다. 그러나 大部分의 国家에 있어서, 政府는 經濟政策, 科学·教  
育·文化政策등 이밖에도 여러가지 機能을 屬性으로 갖는것이 보통  
이다. 이들 機能을 地区 (districts), 道 (provinces) - 共和  
国 또는 州 (states) - 등과 같은 国家의 構成部分에 委任하는  
境遇 이를 聯邦 (federal)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境  
遇를 單一国家 (unitary) 라고 한다.

따라서 위의 定義에 따르면 聯邦国家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国  
家を 形成하며, 다만 몇가지 对內的 機能을 分權化시킨데 불과하다.

그러나 聯合国家 (confederation) 에는 对內的 權力の 求心的

독占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이를 “ 하나의 ” 國家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國家의 機能을 항상 中央政府가 獨占하는 機能과 委任할 수 있는 機能이라는 두가지 類型으로 区分해 보았다. 이 機能은 또한 上部構造的 機能 (supra-structural) 과 下部構造的 機能 (infra-structural) 으로 分類할 수 있다.

여기서 下部構造라 함은, 「마르크스」主義的 意味에 있어서의 基礎 (basis) 에 해당하는 經濟的 要因들도 물론 포함되기는 하나, 여기에만 局限되지 않고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과 文化등 大衆的 次元에 있어서의 積極적 參與를 必需要件으로 하는 다른 分野들도 포함한다.

上部構造的 機能은 一般大衆과는 거리가 먼 「엘리트」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軍事, 外交, 財政的 諸機能이야 말로 바로 이 機能에 해당한다.

이 分類는 中央集權化된 機能과 聯邦國家에 委任된 機能과를 区分하는 分類方式과 밀접한 類似性을 가지나, 그 概念이 合致하는 것은 아니다. 즉, 聯邦國家가 갖는 理念의 全部는 地方政府로 하여금 大衆의 感情과 參與에 보다 밀접하게 接近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單一國家와 聯邦國家 外에도 또 다른 國家組織 方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後述하고자 한다.

몇번에 “ 分斷國家 ”라 함은 위에 定義한 民族이 역시 위에서 定義한바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의 2個 또는 그 以上の 國家로

分割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分断国을 이야기 할때 独逸(東·西独), 中国(本土·台湾) 越南(南·北越南) 및 韩国(南·北韓) 등 4個国을 열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밖에도 「예멘」과 「콩고」(「자이레」), 「라오스」등 여러나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民族이 複數의 国家로 分断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領土의 一部를 暫定的으로 다스리는 複數의 政權間에 分割되어 있는데 불과한 것인지를 문제삼아야 한다. 위에 열거한 나라들은 그 밖에도 여러가지 複雜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여기서 다 취급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다만 独逸民族은 「스위스」의 大部分 地域에서는 물론 「오스트리아」와 심지어 南部「티롤」에서도 나라를 세웠으며, 東西兩獨은 별로 統一意慾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台湾은 오늘날 國際社会에서 더욱더 “ 中国의 不可分의 一部 ” (台湾住民의 대부분이 여러가지 면에서 中国人은 아닌데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또 오늘날 南部越南의 生存能力(政權으로서 뿐만 아니라 国家로서)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등을 지적해 둔다.

韓國의 境遇는 매우 特徵的이다. 韓國民이야 말로 1972年 7.4 声明과 같이 統一에 관한 共同声明을 발표할수 있었던 唯一한 民族이다. 이것은 가장 有望하고 또 가장 흥미있는 事態이다.

現在 南北韓은 모두 生存能力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엘리페」水準에서 뿐 아니라 一般大衆도 統一意慾을 明白히 表示하고 있다.

## 第2章 國際潮流에 있어서의 韓國의 位置

여기서 韓國의 現況에 관해서 詳細히 論述한다는 것은 不必要할 뿐 아니라 非生産적이다. 韓國문제의 核心은 過去를 극복하는데 있으므로, 過去보다는 未來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다만 간략한 歷史的 배경만을 설명한다.

韓國은 1393年에서 1910年까지 李氏王朝에 의해 統治되어 500年間 단절됨이 없는 共同의 歷史를 가졌기 때문에 文化的인 同質性이 강하다. 隱者の 나라인 韓國은 李朝末年에 와서야 門戶를 開放했다. 1866年에는 「프랑스」軍艦 7隻이, 그리고 1871년에는 美國軍艦 5隻이 나타나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몇가지 事件을 들어 補償을 要求했다. 韓國은 이들의 要求를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當時 中國式인 位階的·權威主義的 統治를 하고 있던 李氏王朝는 法보다는 사람이 支配하는 政府였으며 內亂으로 와해과정에 놓여 있었다.<sup>1)</sup>

西方國들이 하려다 실패한것을 日本은 성공시켰다. 日本은 자신이 겪은 「페리」號의 方式을 韓國에 적용, 日本이 西方에 거부했던 條件들은 韓國에 強要하고 植民地로 될 것을 요구했다.

日本人들은 1876年에도 바다를 건너와 그들자신이 도발했던 1875年 雲揚號事件에 대한 배상을 要求했다. 그들은 貿易權, 治外法權등 여러가지 特權을 要求해 얻었으며, 드디어 1910년에는 韓國을 植民地로 삼았다.

이 상태는 1945年 8月 15日 日本이 항복할때 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日本軍은 韓半島에서 누구에게 降服했는가? 日本은 미리 마련된 約定에 따라 38度線 以北에서는 蘇聯에, 그리고 그 以南에서는 美國에 降服했다. 2)

蘇聯의 對日參戰에 대한 代價로 주어진 이 約定은 그후 27年 동안 계속된 韓半島 分斷의 基礎가 되었다. 韓國民이 日帝의 멍에로 부터 벗어난 結果가 고작 國土의 兩分을 가져와 強大國의 冷戰속에 兩極化의 過程을 겪게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悲劇인가? 韓國戰爭도 冷戰의 一部였으며, 印支戰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獨逸과 中國만이 冷戰의 歸結인 內亂에 휩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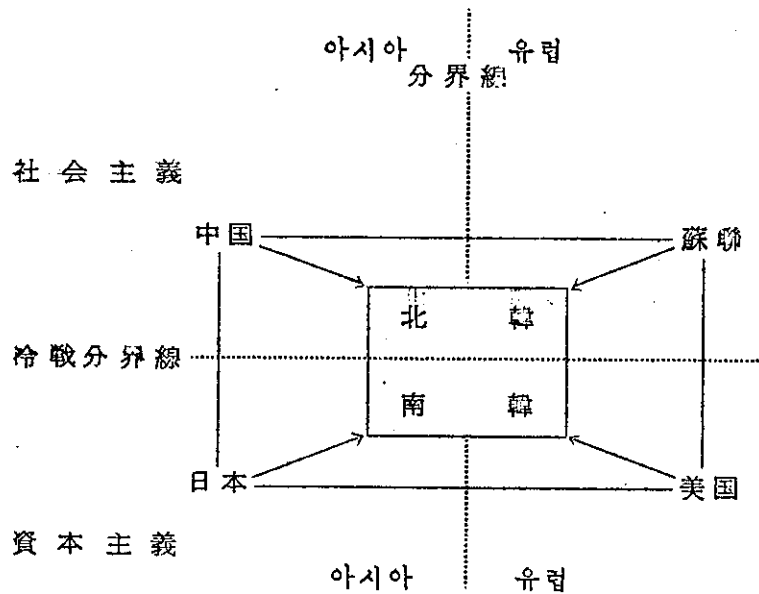
여기서 韓國戰爭이 어떻게 勃發했는지 그 責任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論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本人의 能力밖의 문제일뿐 아니라, 責任을 規定하는 일 자체가 問題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 問題點이라 함은 다음 두가지 사실에 論拠를 둔다.

첫째, 共同으로 未來를 향해 努力하고 있을때 責任所在를 論한다는 것은 보통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敵對關係를 연장시킬 뿐이다.

둘째, 基督教의 傳統으로는 行為者(北韓, 南韓 또는 強大國 一方)를 有罪로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다 進歩的인 分析方法의 입장에서는 “構造” 자체에도 責任이 있는 것이다. 責任을 “構造”에 돌리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로서, 이것은 語義的 習慣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韓國의 位置를 <圖 1>과 같이 간단한 圖型으로 나타내 보았다. 여기에 나타낸 여러가지 主要局面은 모두 韓國問題에 關聯을 갖는 것이다.

첫째, 世界 5大列強중 「유럽」共同체를 除外한 4大強國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韓國밖에 없다.<sup>4)</sup> 또 좋은 意味이건 나쁜 意味이건 간에 韓國처럼 여러 超強國들과 친숙하고, 韓國만큼 그들의 言語에 능숙하고 그들의 文化와 政治를 잘 통찰하고 또 그들



<圖 1> 強大國 競争場內에서의 韓國

내  
2  
나라에 오래 거주해본 경험을 가진 나라도 없다. 5) 韓國이 이처럼 強大國들의 中央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韓國이 엄청난 潛在的 利益이 되는 것이며, 5,000 萬 韓國民族 (대략 南韓에 3,500 萬, 北韓에 1,500 萬)이 앞으로 世界에서 重大한 役割을 담당할 속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둘째, 이와같은 韓國의 中央的 位置는 韓國을 어느나라 보다도 더 밀접하게 強大國體制에 묶어놓았다. 6) 1949 年 中共의 執權으로 中共과 蘇聯의 “社會主義”陣營과 日本과 美國의 “資本主義”陣營에 의한 冷戰分界線이 確연하게 設定된 후, 兩側은 同盟條約을 통해 각자의 陣營을 강화했다. 兩側은 모두 1945 年의 韓國分斷과 韓國의 過去歷史를 충분히 利用하여 이 나라에 自己側에 맞는 政府를 세우는 일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冷戰의 兩極化와 韓國分斷간에는 다음과 같은 明白한 關係가 成立되기에 이르렀다.

#### 冷戰의 兩極化 ↔ 韓國分斷

일단 冷戰體制로 편입되어 分斷된 나라는 거의가 紛爭에 휩쓸리게 마련이다. 一方이 他方과 反對되는 “體制”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緊張의 原因이 되는데다가, 그 “體制”를 운영하는 者가 “同族들”이라는 이유로 緊張은 더욱 惡化되기 쉽다.

지금까지 설명한 韓國統一에 영향을 미치는 基本要因들을 要約하면 다음 <圖 2>와 같다.

|                   | 否定的 要因                        | 肯定的 要因               |
|-------------------|-------------------------------|----------------------|
| 内 的 因<br>要因 (国内的) | 2 個의 國家 / 2 個의 體制<br>分斷된 最近歷史 | 單 一 民 族<br>共 同 的 歷 史 |
| 外 的 因<br>要因 (國際的) | 兩極化<br>冷戰體制에 의 編入             | 兩極化의  해소<br>自 治      |

< 圖 2 > 韓國統一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

위 圖表에서 두가지 問題가 제기된다. 즉, 国内的 및 國際的인 두가지 要因들중에 어느것이 더 重要한가, 그리고 否定的 및 肯定的 要因들 중에서 어느것이 더 強力한가 하는 問題이다.

한가지 分명한것은, 비록 時間的으로 變遷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國際的 要因이 한층더 重要해졌다는 것이다. 事實, 美·中共 和解가 없었더라면, 南北統一贊成宣言 (7·4 共同聲明) 같은 것은 거의 상상할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을 둘러싼 強大國體制內에 兩極化해소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 움직임에 따라 두개의 國家: 두개의 體制가 아닌 單一民族에 보다 큰 重點을 두게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社會現象이 갖고있는 弁証法的 本質을 강조해둘 必要가 있다. 오늘날 兩極化 해소 움직임이 統一運動을 促進하고 있는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수 있다.



한 가지는 強大國들이 分斷된 韓國에서의 紛爭으로 다시 兩極化를 促進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韓國人들 자신이 強大國이 싸우지 않고 있는데 유독 韓國人들끼리만 서로 敵對해야 한다는데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關係는 時計錐와 같은 것이다.

즉, 兩極化解消 努力은 兩極化가 그 絶頂에 달했을 때 가장 高潮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統一努力도 分斷狀態가 그 極에 달했을 때 가장 활발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觀点에서는 兩極化解消 및 統一이 갖는 否定的 側面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體制가 兩極化 解消와 統一을 위해 稼動하는 경우에는 다시 兩極化와 分斷을 促進하는 要因들이 作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統一에 有利한 要因과 함께 現在에도 統一을 拒否하는 要因이 存在한다는 兩面性을 시인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現在로서는 이들 要因이 틀림없이 統一에 有利한 方向으로 進행중이라는 點만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는데 그치고 <圖 1>의 설명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세계, 南北韓 모두 각각 2個의 強大國으로 부터 影響을 받는 過程에서 對立과 相剋이라는 問題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影響力이 時間的으로 어떠한 變遷과정을 겪어왔는지는 여기서는 論外로 하기로 한다.

이들 強大國(訳者註:美·日 및 中共·蘇聯)들은 南北韓에 각각 그自身에 충성하는 「엘리메」들을 확보, 橋頭堡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 「엘리페」들은 종종 重複되는 경우가 있으나 항상 완전히 重複되는 것은 아니다. 南韓의 경우 日本의 영향을 받은 「엘리페」와 美國영향하의 「엘리페」들 간에는 거의 一世代의 差異가 있으며, 北韓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한쪽 陣營의 強大國들이 서로 和合하는 典型的인 冷戰狀態에서는 이들 두개의 「엘리페」간에도 和合이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中·蘇紛爭이 격화하고 美·日對立이 날로 뚜렷해지는 形편 下에서는 문제가 생길수있다.

이 문제는 다음 네번째의 問題로 연결된다.

네째, 韓國의 國際的 位置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國際體制는 앞으로 어떻게 發展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흔히 東西和解라든가 兩極化 解消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脫冷戰의 出發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일 뿐 그것이 어떠한 帰結을 가져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극히 重要한 問題이다.

強大國 體制의 장래는 대체로 다음 4가지로 내다볼 수 있다.

- 一 強大國의 提携：強大國들이 基本的으로 和合하여 全員一致의 기초하에 行動하는 경우.
- 一 多極體制：強大國 모두가 서로 競爭하는 境遇.
- 一 再兩極化：冷戰을 수반하는 兩極化.
- 一 새로운 兩極化：아시아 對 「유럽」의 兩極化.

물론 3個強國이 1個強國에 적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 中共 또는 蘇聯이 어느정도 孤立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關係가 成立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설사 성립된다 하더라도 短期間에 그치거나 별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中·蘇紛爭은 美·日對立보다도 심각하다).

強大國간의 關係가 위의 네 가지중 한 가지 關係로 발전할 때 韓國은 어떠한 運命에 處하게 될 것인가? 韓國은 어느경우이든 困難할 것이지만, 그대로 4 번째 假定과 같이 아시아와 「유럽」을 兩極으로 하는 새로운 兩極化과정의 展開되는 편이 비교적 有利할 것이다.

① 強大國간의 提携가 이루어 진다면 強大國들이 韓國問題를 마음대로 決定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南北韓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可能性이다. 이 경우 南北韓은 強大國간의 和解가 本格的으로 進展되기 前에 「既定事實」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도 하고, 또는 強大國間에 緩衝地帶設定合意가 이루어지기 前에 強大國간의 均衡을 깨뜨리도록 지연책을 쓰기도 하는등, 強大國體制가 變化하는 速度에 맞추어 南北韓關係의 發展速度를 調整해야만 한다.

따라서 매우 예민한 政治的 感覺이 必要하며, 또한 強大國에 관한 韓國人 專門家 (expertise) 를 集結시키는 能力이 必要할 것이다.

② 多極體制가 實現되는 境遇 韓國은 4大強國간의 競爭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南北韓은 오늘날 強大國간의 兩面的 競爭關係에 노출되어 있는 셈인데, 多極化 世界가 到來한다면 어느 意味에서는 南北韓이 모두 4大強國 全体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地理的 中央에 位置했다는 事實은 韓國民에게 아무런 도움될 것이 없다.

5,000 萬의 人口를 가지고 있는 韓國이 5 大強國으로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反面에 다른나라들이 無關心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본다면, 만일 韓國人口가 5 億이 되든가 아니면 차라리 500 萬에 불과했더라면 利點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은 經驗的 現實과는 동떨어진 假定이다.

③ 再 兩極化가 이루어질 可能性은 희박하다. 그러나 萬一 이러한 事態가 발생한다면, 韓國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最近의 事態發展으로 부풀어 올랐던 希望이 좌절되고 南北韓의 “ 派 ” 派를 기쁘게 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새로운 兩極化의 경우를 상정해 볼수 있다.

이것은 日本과 中共이 友好關係를 맺고 美·蘇에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美·蘇關係는 SALT 會談의 구체화, 貿易增大, 頂上 會談등을 통해 한층 強化될 것이다). 이러한 體制下에서는 韓國은 日本과 中共의 支配下에 놓이게 될 危險이 있다.

그러나 日本—韓國—中共이 서로 友好的인 三角關係를 形成하여 東北亞細亞에 새로운 時代를 펼칠 可能性도 상당히 크다. 韓國의 將來는 이러한 可能性 위에서 構築되어야만 할 것이다. 韓國은 現段階에서 中·日間의 理解增進에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언정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 第3章 統一: 몇가지 一般的 考察

韓國의 最近史는 2개의 極端的인 敵對國으로 分斷된 歷史이지만, 그 以前에는 日帝下에 統一을 이루고 있었으며, 더구나 李朝 500年을 통해 統一國家를 유지해온 歷史를 갖고있다.

最近歷史는 또한 一方이 他方에 대해 軍事的 攻擊과 전복활동이라는 두가지 典型的인 方法을 動員하는 끊임없는 統一企圖로 점철되어있다. 『7.4 共同聲明』 마지막 部分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1)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民族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이 聲明은 南北韓이 “同等한 立場에서만이 어떠한 統一이든지 可能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明示한것으로 보인다. 長期的으로 볼때, 이 方法이야말로 항구적인 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볼때는, 이 方式은 一方이 他方を 支配할 것을 前提로 하는 지금까지의 統一方式에 비해 훨씬 複雜한 問題를 안고 있다.

몇컨대, 지금까지의 論點(thesis)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즉, 統一은 두개의 國家로 부터 하나의 國家로 뛰어넘는

것이 될수는 없으며, 여러가지 中間的 段階 (many stages in-between) 를 거쳐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음 3가지 論點는 一見 사소한것 같지만 매우 重要的 것이다.

첫째, 이 方式이야말로 唯一한 “ 現實的 ” 接近方法 (realistic approach) 이라는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한 體制가 發展함에 따라 否定的인 要因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否定的 要因은 우선 国内的으로는 두 體制가 理念的으로는 물론 社會制度에 있어서도 相異하다는데서 비롯된다. 社會主義經濟와와 資本主義經濟는 相異할뿐 아니라 同種體制間보다도 서로 相對方에 浸透하기가 힘들다.

國際的으로는 現實的 接近이 強大國體制의 움직임과 너무떨어질 경우 否定的 要因을 야기하게 된다.

둘째, 이 方式은 唯一한 “ 融通性있는 ” 方式 (flexible approach) 이다. 統一 過程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結果를 파괴하지도 않고 政治的 推進力을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은채, 잠시 숨을 돌리거나 또는 약간의 後退까지도 감수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 당장 全面的인 統一 ” 을 하자는 絶對的 接近方式은 오늘날의 世界의 現實에 비추어 오히려 破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融通性없는 方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 方式은 2個의 相異한 體制가 새로운 形態의 國家를 形成, 共存할 수 있는 多元論的 接近方式 (pruralistic approach) 이다. “ 民族的 單一性 ” 만이 문제되던 過去에는 問題가 비교적 간단했으나, 이제는 “ 體制의 多樣性 ” 도 加味되어 問題가 더욱 복

잡해 졌다. 오늘날 南北韓 어느쪽의 體制도 붕괴되거나 또는 相對方에 굴복하리라는 징조가 없다. 때문에 하나의 國家안에서 民族的 單一性을 保存하면서 동시에 2個의 體制를 共存시킬수 있는 새로운 公式을 안출한 必要가 있는 것이다. 南北韓은 이러한 公式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完全한 統一이 실상 그다지 매력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發見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問題에 관한한 傳統的인 政治學 또는 國家學 理論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傳統的 理論은 2個의 國家가 1個의 國家로 되는 過程을 連續的인 過程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量的인 飛躍으로만 파악한다. 즉, 統一로의 過程에 1.9 國, 1.8 . . . .

1.2, 1.1 國의 過程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統一을 하나의 過程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現實的이고 融通性있고 多元主義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現實主義的, 伸縮性있는, 그리고 多元論的 접근방식이 必要한 것이다.

統一을 過程으로서 파악하는 이 理論을 聯合理論 (theory of association) 이라 부르기로 한다. <sup>12)</sup> 이 聯合理論으로 統合 (integration) 을 통한 一國形成公式을 導出할수 있을 것이다. (이 理論은 一國이 他國에 의하여 吸收·征服되는 過程을 설명하는 吸收論 (absorptive method) 과 區別된다.

이 過程은 雙方間의 積極的 交互作用이 날로 활발해질것을 前提로한다. 이 交互作用으로는 交流 (exchange) 와 協力 (cooperation) 을 생각할 수 있다.

交流라 함은 物的, 人的 및 情報가 交換됨을 말하며, 協力이라 함은 이와같은 交流가 雙方間의 共同機關을 (joint institution)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雙方의 能力的 範圍를 초월하는 일을 할수 있다. 商業分野의 경우를 예들들어 설명한다면, 이 差異는 마치 貿易과 合作投資, 또는 別個의 商工會議所를 두는 경우와 合同商工會議所를 두는 경우의 差異와 같은 것이다.

交流와 協力과 같은 交互作用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에 적합한 交互作用을 특히 聯合的 交互作用 (associative)이라 부르기로 한다. , 한층더 具體적으로 말하면,

① 相互依存的, 또는 共生的 (interdependent, or symbiotic)인 作用- 一方에 대한 打撃이 他方에도 打撃이 될 정도의 相互依存關係가 成立할 것.

② 衡平的, 또는 均衡的 (symmetric, or equitable)인 作用- 交互作用에서 雙方이 얻는 利益이 비슷할것.

③ 形成, 또는 機關超越的 (institution-building or -transcendence)인 作用 - 特定 一方만이 아니라 雙方모두에 屬하는 機關을 形成하는 作用일 것.

가장 基本的인 것은 衡平의 原則, 즉 交互作用을 통하여 一方이 他方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原則이다. 이 原則은 좀더 說明을 要한다.



한가지 說明方法은 交流, 協力 및 機關形成에 있어서 非衡平的, 不均衡的인 것이 무엇인가를 說明하는 것이다. 즉, 交流, 協力 및 機關形成時에 避해야할일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非衡平과 不均衡이 介在되던 결국에 가서 紛爭을 誘發하여 統一努力을 阻害할것이기 때문이다.

不平等 交流의 典型的인 方式은 原料와 工產品 (특히 資本財아닌 消費財)을 交換하여 一國의 自立經濟를 害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反對하고자 하는 것은 一國이 오히려 自立經濟를 促進하기 위해 一時的, 또는 短期的으로 原料를 輸出하고 消費財를 輸入하는 경우가 아니라, 持續的인 依存과 不平等을 야기시키는 協定을 맺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不平等 協力の 典型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合作投資” 事業이다. 合作投資에서는 原料와 加工品을 交換하는데 그치지 않고, 勞動力과 技術, 그리고 市場과 資本을 交換함으로써 不平等 交流를 더욱 促進시켜 國內問題를 항상 強國의 영향하에 두게 된다. 弱한 나라는 自動車를 얻겠지만, 그 相對方인 強한 나라는 自動車를 더욱 發展시킬 힘과 能力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合作投資로 短期的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다.

끝으로, 不平等的인 機關形成의 古典的 方式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一方이 他方을 자기側 機關에 “新人社員” (junior partner) 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大衆의 관심은 어느側이 이 機關을 代表하며, 그 機關이 어느 나라에 位置하는가에 集中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것은 누가 實質的 權力을 享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有權者의 分布만 가지고 論할 문제가 아니며, 새 機關을 뒷받침하는 概念을 決定하는 執行部署를 어느 側이 차지하여 發言權을 행사하느냐가 重要한 問題이다.

한가지 例를 들어 보자,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貿易政策에 관해 여러가지 差異點을 갖고있다. 새로운 機關 어느 한쪽의 體制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運營된다면, 大小間의 여러가지 決定이 이들이 갖고 있는 概念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므로, 결국 그 體制에 유리한 方向으로 運營될 것이다.

兩國間에 또는 合作事業에 있어서 相互隔離狀態로 부터 上述한 垂直分業으로 넘어가는 過程은 유감스럽게도 不安定하다. (兩國이 平等하게 參與, 執行部署에 同等한 權限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相互隔離狀態를 一種의 水平分業으로 대체하는 것을 문제삼아야 한다. 水平分業을 이룩하는 努力이 실패한다면, 따라서 垂直分業을 期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隔離狀態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물론 水平分業, 즉 聯合 (association)이 隔離狀態보다 바람직한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水平的 分業의 經濟的 基礎는 相互補完性 (complementarity) 및 規模의 經濟 (economies of scale)에 있다. 그러므로 分業의 理想的 形態는 예컨대 「트랙터」로 源油를 交換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自動車 또는 다른 機種의 「트랙터」등 비슷한 類型的 製品과 交換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強點을 살리면서도 참으로

相互利益이 되는 交換을 成立시키기 위한 合意에 도달한다는 것이 必要하다. 물론 兩側이 特定の 政治, 經濟的 및 軍事的 「불력」에 屬해있다는 사실 때문에 問題가 있다.

이러한 問題는 오늘날 「유럽」, 共同市場과 「코메콘」간의 關係에서도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水平分業의 다른 하나의 方式은 異種의 商品이 아닌 同種의 商品을 協力해서 生産하는 것이다. 예컨대 兩側은 「트랙터」나 「트랜지스터」를 協力해서 生産할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境界線 周圍에 一定한 土地를 區劃하여 共同生産團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 通信, 輸送등 社会·經濟體制에 큰 影響을 받지 않는 下部構造 (infrastructure)가 이에 適合할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發電所間的 協力은 兩側의 最大發電期間과 盛需期가 다를 때 가장 바람직한 分野이다.

幹線道路, 遡河, 鐵道, 航空業등의 分野도 그 좋은 例이다.

이러한 共同事業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새로운 制度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機能은 처음부터 明確히 指定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方法일것이다.

예컨대 合同商工会議所를 설치하여 간단한 交換과 貿易을 담당하도록 하는등 各各 協力分野를 한 가지씩 配定하는것도 한가지 方法이다. 이경우 그 分野의 協력이 실패하면 그 該當되는 機關만 廢止하면 된다.

平等과 衡平인 보장된다는 것은 극히 重要하다.

一般的으로 共同事業은 弊에서 出発, 새로운 制度를 마련하는 일 부터 着手할때 平等을 보장할수 있게된다. 대체로 旧制度는 偏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旧制度를 活用하면 一方에 有利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各種「유엔」機關, 특히 美国이 支配하는 一方으로 資本主義的인 「유엔」機關들 (世界銀行, IMF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때문에, 전혀 새로운 機構를 설치하여 兩側에서 한사람씩 職員을 派遣, 같이 일하게 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엄격하게 衡平의 法則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물론 時間이 흘러감에 따라 聯合 (association)이 強化되며 衡平의 法則을 완화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중 段階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하면, 多少間 實質的인 相互依存關係가 成立되면서도 衡平和 均衡이 維持될수있는 方向으로 交流와 協力を 당할 새로운 機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衡平을 期할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紛爭이 發展, 축적되어 事業全體를 망치지 않도록 現狀態를 당분간 그대로 維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聯合的 交互作用 (associative interaction)의 相互依存的, 均衡的 및 機關形成이라는 3가지 要件에 다음 2가지 要件을 追加할수 있게 되었다.

- 一 極히 特定된 分野로부터 協力에 着手할것.
- 一 下部構造로 부터 協力を 始作할것.

後者에 관하여는 몇가지 더 지적해둘것이 있다.

合同軍事力, 共同外交政策, 共同財政政策 등 上部構造的인 문제로 부터 協力에 着手한다는 것은 韓國의 現實情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首都에 있는 極히 制限된 「엘리메」에게만 直接關聯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協力方式은 古典的인 「유럽」方式으로서 最高權力者인 王이나 皇帝가 人的인 結合을 이루고 있을 때는 可能했다. 그당시는 政治的인 意志만 있다면, 上層部의 少數의 「엘리메」 만으로도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現在의 兩北韓의 경우처럼, 大衆이 (비록 극히 相異한 形態이기는 하지만) 政治的 意思決定 過程에 參與하고 있는 경우에는 上層部間의 決定만으로는 지속적인 効力을 기대할 수 없다.

韓國의 統一문제는 大多數의 人口가 참여한 가운데 다루어져야 다. 大衆이 統一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이를 支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즉, 多數의 積極的인, 그리고 日常的인 參與가 必要하다.

要件대, 衡平의 原則이 세심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밑으로 부터, 그리고 사소하고 具體的인 일로부터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結論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統一理論을 具體的인 現實에 적용시켜보기로 한다.

## 第4章 韓國統一을 위한 構想

韓國統一의 目標은 明白하다. 즉, 韓國을 1個國家로 統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可能한 "過程"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過程은 段階別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이 段階들이 엄격한 年代順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順序가 顛倒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다음 段階의 措置에 着手하기 전에 그 前段階의 措置가 이미 完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후에 밝혀지겠지만, 同時發生的인 경우도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1) 全般的 休戰

7.4 共同聲明은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역도발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군사적 충돌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措置는 모두가 否定文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히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即 雙方이 否定的인 交互作用을 中斷하고 아무런 交互作用도 없는 狀態로 나아감으로써 보다 積極的인 交互作用을 시작할 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이것은 서로 중상, 비방하도록 教育하고, 大小의 武裝도발을 감행해 온 지난 27年間の 歷史에 종지부를 찍은 措置이다.

双方은 앞으로 이 誓約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紛爭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一方이 否定的인 心理的 또는 物理的 行動을 취하더라도 他方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든가 또는 이에 대한 反應을 지연시키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큰 所得이 아닐수 없다. <sup>14)</sup> 이러한 狀態는 대체로 소극적인 平和共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措置는 보다 積極的인 것이다.

## 2) 双方의 高位人士를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方式은 必需的이다. 그러나 이들은 對等한 位置에 있는 사람들 이어야 한다. 이 委員會의 課題는 對話의 「채널」役割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措置를 案出, 調節하는 것이 될 것이다. 兩側 共同委員長은 "호트.라인"을 통하여 손쉽게 意見を 交換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機能的으로 特定화된 特別委員會

다음 段階의 措置는 역시 共同委員長을 갖는 特別委員會 (ad hoc Committees) 들을 設置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關하여, 共同聲明은 "人的, 物的, 郵便, 社会的, 政治的 및 그밖의 交流"라고 몇가지 分野를 提示하고 있으며, 또 "突發的 軍事事故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平壤間에 直通電話를 設置하는 문제와 1천만 離散家族에 관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成功"

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頂上會談에 관한 言及은 없다. 15)

그러나 이상 열거한 것만 하더라도 고무적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指摘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特別委員會는 처음부터 機能的으로 特定化하여 단 한 가지 協力分野만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重要하다. 그 理由는 前述한 바와 같이 만일 協력이 실패하는 경우 보다 큰 協力機構를 손상시킬 없이 그 該當 委員會만 中斷하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면 한가지 問題가 全体로 과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동시에 여러가지 委員會를 설치하여, 예컨대 每週 會議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고 協商過程에 活氣를 불어일으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同時に 여러가지 委員會를 열면 열수록 1個 委員會의 失敗를 무리없이 吸收하기에 좋으리라는 것이 明白하다.

셋째, 協力分野를 選定하는에는 衡平의 原則이 지켜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兩側이 同等하게 寄與할수 있는 分野가 바람직하다. 예컨대, 上述한 바 輸送, 通信, 「에너지」 등의 分野가 그것이다. 鐵道, 郵便制度라든가 電話線, 電圧같은것은 資本主義인 社會主義인 代 체로 비슷하여, 약간의 協力만 이루어 지더라도 특히 接境地帶의 住民들에게는 당장 利益을 줄 수 있는 分野이다. 이 分野에서는 加工製品과 같은 優良品, 또는 劣等品 등의 問題가 없어 優劣論爭을 불어일으킬 우려도 없다.

넷째, 多數의 國民이 參與하는 下部構造分野의 協力事業에 될수록



빨리 着手해야 한다. 合同商工会議所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合作事業에 착수하여 南北韓이 모두 必要로 하는 製品을 共同生産하는 일등이 이 分野의 經濟協力에 속한다. 또 共同 文化事業, 특히 博物館의 交換과 같은 共同의 歷史部門에 관한 事業도 생각할 수 있다. 旅行事業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問題점이 있다.

다섯째 人的交流라는 全体的인 問題가 있다. 이 問題는 離散家族과 親戚의 비극을 해소한다는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提起된 것으로서 이點 世界는 그들의 상봉을 촉진하는 全世界的 組織網을 가진 赤十字社의 平和樹立 機能에 다시한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에서 착취로 부터의 解放이 重要視되는 것만큼 自由主義 社會에서는 旅行의 自由와 나아가서는 全般的인 個人의 自由가 중요시된다는데 問題가 있다. 이 問題로 결국 하나의 過程으로 파악하여 離散家族에게 대한 旅行의 自由를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을 취할수 밖에 없다. 한가지 明白한 것은 一方이 他方住民의 入國을 거부할 權利를 고집하는 限 一國家公式은 成立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非武裝地帶(板門店)를 離散家族의 再會場所로 이용하는것이 좋은 것이다. 그다음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離散家族에 限하여 서로 相對方의 家庭을 一定期間동안 訪問하도록 허용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 段階로 이러한 制限을 철폐하여, 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선 一定한 人員數를 정하여 一定期間동안 相對方 地域을 旅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人員數와 訪問期間의 制限을 모두 철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너무 漸進主義的이며 속도가 느리다고 失望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脱出과 전복기도 때문에 後退를 가져오는 것 보  
다는 나을 것이다.

以上 3 가지 段階가 끝나면 南北韓은 積極的인 平和共存 狀態로  
들어간다. 다음 3 가지 段階는 이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

#### 4) 機能的으로 分散된 常設委員會

一定期間이 지난 후에 經驗을 쌓아 제자리에 잡힌 委員會들  
은 같은 分野의 委員會들 끼리 統合하도록 한다. 예컨대, 輸送, 通  
信 및 「에너지」分野의 委員會들을 統合하며 하나의 機關으로 充  
足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調節作業이 훨씬 용이해져 協力  
을 크게 촉진시켜줄 것이다. 나아가서는 오늘날 世界의 모든나라들이 거의  
共通적으로 가지고 있는 內閣部處制度를 兩側에 公주하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內閣構造는 兩側이 대체로 서로 相應하므로 部處의 構造를 갖는 機關을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도록 할수있을 것이다. 당장에 全韓國을 管轄하는 部處(Call-Korean  
ministries)를 설치하는것이 보다 合理的이라는 反論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活動이 極히 制約받아 사실상 껍데기 뿐인  
部處가 될 우려가 있다.

#### 5) 位置選定 問題

이 問題는 비교적 初期段階부터 重要問題로 제기될 것이다.

實質的인 解決策을 한가지 밖에 없다. 全韓國機關은 板門店에 두는 것이다. 그 代案으로서 各委員會마다 分割하여 南北韓에 各各 하나씩 設置하고 全韓國的인 問題는 通信으로 解決하도록 하는 方法과 또는 各委員會를 南北韓에 交代로 設置하도록 하는 方法등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代案은 現在의 構造를 凍結시켜 버릴 위험이 있고, 두번째 代案은 너무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人員의 南北移動을 수반하게 되고 一種의 治外法權 問題가 提起되어 問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모르며, 또 兩側이 一定期間동안 실질적인 "事務所"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도 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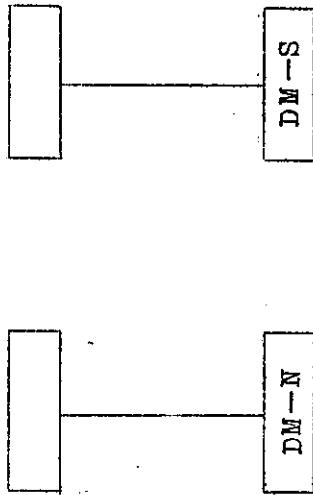
이에 비하여 板門店에 共同委員會를 設置하는 方式은 後日에 共同首都 또는 一種의 "聯邦區域"을 形成할 基礎를 마련할 수 있어 가장 基本的인 方式이겠으나, 다른 方式들도 "몇가지 協力分野"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 6) 全韓國的 上部構造의 出現

그 다음은 <圖 3>과 같은 形態를 갖는 全韓國的 上部構造를 中立地帶에 設置하는 段階이다. 여기 提示한 3重構造는 매우 簡單하며 상당한 融通性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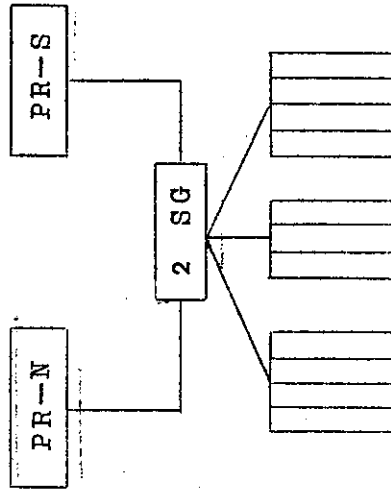
제일 밑에 있는 機關들은 여러 特別委員會를 統合해서 만든 全韓國 部處들이다. 그 위에는 이 들을 共同으로 관장하는 2名의 事務所長(SG)이 있고 그 위에 兩側의 最高決定權者인 2名의 常駐代表(PR)를 둔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면 事務所長이 常駐

Review 審議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機關

政策決定水準



常設機關

執行

|    |   |      |
|----|---|------|
| PR | 一 | 常駐代表 |
| SG | 一 | 事務局長 |
| DM | 一 | 決定權者 |
| 用  | 例 |      |

<圖3> 全韓國 上部構造

代表를 兼하게하여 그들間에 合意된 事項은 各各 實踐토록 하되 合意되지 못한 事項은 兩側이 各各 自己側의 決定權者에게 問題를 회부하도록 할 수 있을것이다.

國家元首 또는 政府首班은 定期的으로 또는 必要時 마다 (그러나 最少限 1週, 1個月 또는 1分期마다 1回以上) 現場에 나타나도록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一種의 議會形式을 갖춘 모임을 열어 문제를 審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임에는 國會가 참여하는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 黨政治局이나 黨中央委員會가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兩側은 相對方이 어떠한 方法으로 議會에 參加할 사람을 選定하건 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問題를 간섭하게 되면 全體的 統一體制에 後退를 가져와 冷戰時代의 「이데올로기」論爭을 再燃시킬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複數政黨制度와 自由選舉라는 自由主義 思想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自己들의 選舉方式만이 個個人을 政治過程에 참여시키거나 또는 統治機構를 設立하는 唯一한 方法인것은 아니라는 點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選舉方式은 特定한 社會構造가 先行되어 있거나 그 社會가 一定한 歷史的 段階에 到達해 있을때 可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맑스」主義者들은 「맑스」主義政黨에 어떤 特殊的地位를 부여하도록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주장도 全體問題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審議 議會가 各各의 政策決定權者뿐 아니라 相對方과의 對話를 시작한다는 事實, 그리고 이 議會가 어떠한 兩側의 各界各層을 代表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이 議會는 全韓國的인 問題를 決

定한다는 機能을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은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가 人格的이고 慣習的인 民主主義를 實現키 위한 討論場으로 活用  
하여 차차 그 本然의 機能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圖 3>의 構造는 2 國家公式를 保存하고 있다. 前述한 I 章의  
定義에 따르면 아직 2 個의 國家가 存在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下部構造로 부터 서서히 統合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聯合理論 ( theory of association ) 에 따라 거꾸로 선  
聯邦構造가 成立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各國은 独自の인 軍事力,  
따라서 終局的인 內的權力을 保有하고, 外交政策을 가지며 ( 調節委員  
會, 情報 및 意見交換등이 있겠지만 ), 또한 基本的 財政政策을 계  
속 管掌할 것이다. 그러나 下部構造의 段階에서는 政府機關 및 民  
間團體間에 協力이 이루어져 多數의 住民이 參與하는 統合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世界의 다른곳에도 이러한 先例가 있는가? 共同領土 (   
shared territory ) 라는 概念外에는 先例가 있다. 즉 北歐諸國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北歐諸國間의 協力は 聯合的인 것이며 또한  
이 方式에 매우 類似한 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北歐의 方式  
은 韓國의 경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점이 있다.

韓國의 경우는 진지한 統一意慾이 있기때문에 協力の 名分이 아  
니라 그 方法이 문제되고 있음에 反하여, 北歐의 경우는 아직 協  
力の 名分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北歐의 경우는 北歐統一論을  
주장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이미 이룩해 놓은 聯合體制에 反對하는

사람도 드물다. 따라서 現在 北歐는 願한다면 統一國家로 指向할 수도 있고, 또 政治的 趨勢가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關係를 단절해 버릴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오늘날 大部分의 北歐사람들은 이 問題에 不可知論的 立場을 취하고 있어 統合에 反對도 贊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國際的, 國內的으로 強力한 힘이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韓國人 이 참으로 統一을 願한다면, 다음과 같은 措置를 取해 참다운 統一의 길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 7) 全韓國의 構造로 부터 하나의 韓國으로

하나의 韓國으로의 움직임은 <圖 3>의 3段階 機關中 역시 밑에서 부터 始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一 執行機關:

兩側 部處의 機能을 점차적으로 全韓國 機關에 移讓하고, 兩頭體制 (Pairing formula) 를 완화, 우선 委員長을 交代로 맡게하고 다음에는 점차 長期間의 任期를 갖는 單獨委員長을 任命한다.

##### 一 政策決定 機關

兩側의 政策決定權者가 各己 兩側의 承認을 얻어 1名の 常駐代表를 지명하고, 점차로 1名の President와 2名の Vice-President를 두는 方向으로 나아간다. 맨처음에는 이

全韓國 President 를 合同議會에서 選출하나 그다음부터는 一種의 國民投票로 選출하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一 審議機關

選舉를 共同으로 실시하여 合同議會를 構成한다.

順序를 밑으로부터 적은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기 때문이다. 이 過程을 밟아가면서 적당한 時期에 財政, 外交, 軍事라는 3大機能들도 점차로 統合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 問題를 合同議會 選舉와 함께 最終段階로 미루는 것은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런 問題들을 먼저 다루게 되면 全体統一過程을 破壞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統一韓國이 古典的인 1個國家로 形成된다. 그러나 그 過程은 全然 새로운 것이다. 더구나 이 統一國家는 그 안의 2個 部分에 두가지 相異한 社會經濟體制를 수용하는 唯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은 이 段階에서는 板門店( 또는 이와 類似한 地域을 聯邦區域으로 하는 一種의 聯邦國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文化的으로 뿐 아니라 構造的으로도 서로 相異한 여러州( Canton )의 聯邦體이면서도 統一國家를 指向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수있다. 이런 形態의 國家들이 장래에도 發展을 거듭해야 한다는 觀點에서 볼때, 두개의 韓國은 平和的인 競爭속에 共存하는 多元的 國家가 어떻게 形成될 수 있는가를 世界에 보여줌으로써 世界史에 계속 공헌할수 있을것이다.



## 8) 國際情勢의 役割

지금까지의 統一構想에서는 國際情勢를 도외시하였다. 이제 周邊情勢의 影響을 검토할 차례이다. 여기서의 統一은 韓國人 自身 이해야할 일이라는 基本假定을 취했기 때문에, 다른나라들 특히 強 大國이 干涉이나 壓力을 가하지 않고 兩側이 요청하는 문제에 관 해서만 問題에 關与할 것으로 想定한다. 南北韓은 가까운 將來에 韓國과 다른나라 및 國際機構들과의 關係에 관한 方向을 明示해야 할 것이다. 이 關係設定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方向을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UN 同時加入이나 南北韓 同時承認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개의 韓國을 固定化할 뿐 아니라 統一努力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韓國人들끼리 解決해야할 韓國統一論議에 外部의 傍觀者들을 끌어들이 위험이 있다.

둘째, 그러나 두개의 韓國이 UN이나 그 산하기관의 韓國問題 討議에 「옵저버」로 參加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두개의 韓國에게 基本的인 協力課題의 하나인 共同代表團을 試圖해 본 機會를 提供해 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極히 專門인 問題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셋째, 얼마동안 時間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나라들이 形成過程에 있는 全韓國中心體와의 關係를 發展시키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代表團을 파견했다가 이를 점차 大使館으로 승 격시켜 1個의 韓國을 承認하는 形式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現在 서울과 平壤에 있는 大使館들은 總領事館으로 格下함으로써 中央에는 大使館을 두고 聯邦 兩側에는 總領事館을 두는 形式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내재. 이러한 過程중에 南北韓은 1個國으로 取扱받고자 하는 分野와 2個國으로 取扱받고자 하는 分野를 決定하되 前者의 領域을 넓히고 後者の 範圍는 축소해 가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들은 물론 이에 대하여 崇高의 技術援助로 도움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前述한바와 같이 基本的으로는 南北韓의 意思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過渡期에는 外國은 될수록 兩側과 大使關係를 맺든가 아니면 어느 側과도 大使關係를 맺지 않음으로써 兩側을 公平하게 대할것이 要望된다.

지금까지 強大國保障問題는 言及하지 않았다. 그 理由의 한가지는 強大國 保障이란 것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強大國間의 行動一致 (big power concert)에 基礎하든가, 아니면 強大國의 兩極化 (big Power Polarization)에 基礎하여 이루어져 韓國에 또다시 兩極體制를 再現시킨다는 두가지 중의 한가지 形態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最返의 歷史로보아 強大國 保障의 必要性을 過大評價할 것은없다.

또한 지금까지 美軍이나 UN軍의 撤収問題도 拳論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問題 역시 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한 聯合方案이 成功的으로 진척되면 이 問題는 自動的으로 解消될 문제이나 첫段階에서 부터 이 問題를 上程하도록

強要하면 오히려 全体過程을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本著者が 지금까지 외도한 것은 北歐가 아니라 아시아의 政治, 文化的 現實 (Political culture) 主眼點을 두어 統一構想에 流動性과 融通性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17) 或者는 이 戰略이 大規模 正功法이 아니라 「게릴라」戰術을 연상시킨다고 評할지도 모르겠다. 本著者の 基本構想은 困難이 있을 때는 당분간 이를 우회하여 보다 쉬운 問題부터 着手한다는 것이다. 한가지가 解決되면 事情이변해서 일단 덮어 두었던 問題도 이미 달성해 놓은 成果 位에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개의 軍事機構, 美軍 / UN 軍의 撤収, 自由往來, 總選舉, 南北韓에서의 政黨活動 自由등 큰 問題들에 正面으로 부딪치면 결국 困難에 빠지고 말 것이다. 特히 처음부터 UN 監視下에 南北韓總選舉를 실시한다는 方式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 方式은 西歐式 自由主義 制度를 다른 文化와 體制를 가진 地域에 그대로 실현시키겠다는 自己中心的인 주장에 불과하다.

여기서 특히 強調하고자 하는것은 韓國統一에는 그밖에도 다른 方案이 있으며 비록 困難은 있지만 韓國의 事態는 비관적이기는 커녕, 強力한 政治的 意志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希冀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상세한 검토를 要하는 問題가 한가지 남아있다. 南北韓의 서로 다른 體制가 어떠한 關係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앞서 漸進的인 聯合 (gradual association) 이라는 理論을 제시한바 있지만, 그밖에도 極端的으로 相異한 두가지 社會經濟體制間에 平和的 共存을 가져올 明白한 理論을 제시할 必要가 있다.

## 第 5 章 平和共存理論과 韓國의 現況

前述한바와 같이 平和共存에는 積極的인 平和共存과 消極的인 平和共存의 두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두개의 韓國 公式과 關聯性이 있다. 그러나 消極的 平和共存은 단지 敵對關係의 不在를 의미하는데 反하여 積極的 平和共存은 여기 설명하는 여러가지 聯合方案(associative measures)을 追加하게 된다. "平和"란 말과 "共存"이란 말 自体가 보다 상세한 定義를 요하는 用語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慣用的인 意味에 따라 두개의 相異한 社會. 經濟體制間의 中立的인 行動方式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行動方式에서 지켜야 할 基本的 規範은 무엇인가?

첫째. 平和共存이란 말은 相異한 體制間에 協力이 可能할 뿐 아니라 그것이 所望스럽다는 것을 表示한다. 이것은 두개의 體制가 서로 接近한다든가 두가지중 한가지 體制가 相對方 體制에 가까워지는 것을 平和共存의 條件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兩側 모두 相對方이 協力方向을 變更해 주기를 希望하거나 期待해서는 안된다. 어느側도 交互作用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中間立場을 취할 必要는 없다. 平和共存이라는 概念은 심지어는 接近 自体를 反對하며 또한 一方이 崩괴하는 것도 反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平和共存은 兩體制가 무한정 持續할것을 전제하는것

도 아니다. 兩側은 모든 體制가 辨証法的으로든 또는 다른 方法으로든 간에 『變化의 法則』에 따라야한다는 것을 合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明白히 해 둘 것은 어느側도 相對方에 體制變更을 強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不干涉政策과 不可侵 政策을 견지해야 한다. 體制變化는 참다운 内部的 發展過程의 結果로 이루어 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發展過程이 必然的인 것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論할 問題가 아니다.

한 體制가 다른體制보다 먼저 소멸하기를 스스로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전북활동의 結果로서가 아니라 社会的인 屬性에 의한 것이건 自發的인 意思에 의한 것이건 간에 어떠한 内部的 發展過程의 產物이 아니면 안된다.

셋째. 交互作用이 서로間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兩體制間에 사소한 物的交流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른바 政治가 介入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다. 따라서 積極的 平和共存이란 항상 貿易과 協力, 그리고 접촉을 통하여 조용한 전북활동이 介在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結論이 가능하다. 즉 雙方 모두 自己측의 長點을 나타낼수 있어야 하며 또 어느側도 相對方의 弱點을 利用해서는 안된다. 具體的으로 一方이 우수한 經濟的 文化的 產物을 가지고 協力에 參與하여 우수성을 과시할 기회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一方이 어떤 特定分野에서 특히 취약하다면 相對方도 다른 分野에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는限 이 分野에 관한 協力부터 着手해서는 안

된다. 平和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二重的인 補完이 加味되어야 한다.

네째, 相對方에게는 "宣傳"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弘報"活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즉, 雙方 모두 相對方에 宣傳活動을 展開하되, 상호 合意된 方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兩側은 相對方에 대해 敵對的인 宣傳活動을 해서는 안된다. 自己측 領土內에서도 이 原則을 준수해야 겠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역시 內부분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相對方에 대한 宣傳에서는 이 原則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平和共存이라 함은 收斂化理論 (convergence thesis)에 反對되는 概念이나 雙方이 内部的 運動法則에 따라 基本的인 變化를 가져온다는 理論에는 反對立場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立場은 相互경계태세를 지속하는 消極的인 平和共存이며 보다 積極的인 平和共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分斷國들은 悲劇은 커녕 어떤 意味에서는 여러가지 選擇可能性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幸福한 處地에 있다고 말할수도 있다.

이러한 多樣性위에 住民間의 交流가 실현된다면 兩體制間에 自由競爭이 이루어져 오히려 豊요한 社會를 이룩할수 있을 것이다.

雙方은 相對方의 長點을 배워 서로 長點을 취하고 短點을 버릴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國民들은 지금까지 各自의 版圖內에서 쌓은 背定的 否定的 經驗들을 모아 統一을 向한 내일의 共同의 社會를 보다 豊성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Galtung, J. ed. 1970: Cooperation in Europe  
Universitetsforlaget, Oslo.
- Galtung, J. 1972a: Europe: bipolar, bicentric or  
cooperative? Journal of Peace Research IX, No. 1.
- Galtung, J. 1972b: The European Community: a Superpower  
in the making. Universitetsforlaget, Oslo;  
Allen & Unwin, London
- Galtung, J. 1972c: Japan and future world politics.  
PRIO mimeo, Oslo.
- Galtung, J. forthcoming: The true worl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5 July 1972.
- Kim, Byong Sik 1970: Modern Korea. The Socialist North,  
revolutionary perspectives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 Kim, C.I.E. & Han-Kyo Kim: Korea and the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 Kim Il Sung 1971: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 Paige, G.D. 1968: The Korean decision. Free Press, New York.
- Shin Bum Shik 1970: Major Speeches by Korea Park Chung Hee.  
Hollym Corp., Seoul.
- Stone, I.F. 1952, 1969: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and London
- Yong-Hwan Jo & S. Walker 1972: Divided nations and  
reunification strateg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IX, PP.247-259

< 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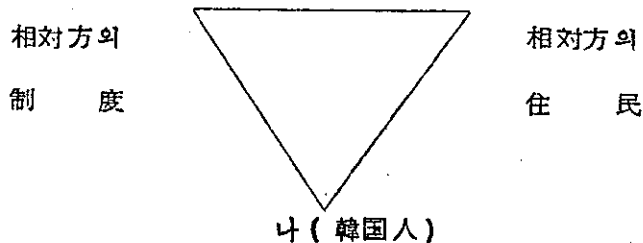
☆ 이 論文은 1972.8, 14217 日本 京都에서 열린 韓國統一을 위한 國際會議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of Korea ) 에 제출했던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參加者 여러분은 물론 특히 이 大會 主權者인 金三奎氏가 이 論文의 작성에 격려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데 대해 감사하나, 여기 표명된 모든 見解는 全적으로 本著者の 責任에 속한다.

이 論文은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의 PRIO-Publication no 22 - 23 과 같은 내용이며 理論展 開보다는 一般理論을 特定の 政治的 現実に 適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 註 1 ) Kim, C.I.E. & Han - Kyo Kim : Korea and the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才 1 章 참조.
- 2 ) 38 線 設定에 관한 「아이디어」는 美國防省 國務省 및 軍事調節委員會의 1945.8, 11 日 「메모」에서 나온 것이다. 이 情報를 제공해준 京都大學의 「다바네」教授에게 사의를 포함한다.
- 3 ) 韓國戰 發生原因에 관해서는 G. D Paige: The Korean Decision Free Press New York 1968 과 I.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 Monthly Review, New York and London 1952, 1969 冊 참조.



- 4) EC의 世界的 役割에 관해서는 J.Galtung the Euro Pean Community : a Superpower in the making allen and unwin, 1972. 1972b 참조.
- 5) 이 문제에 관해서는 Glenn Paige의 도움을 받았음.
- 6) 「유럽」은 「유럽」이 主要冷戰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유럽」에서 対決중인 強大國은 2個國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문제는 거의 도외시키고 있다.
- 7) 두개의 韓國에 관한 見解는 Kim Il Suneg 1971과 Shin Bum Shik 1970, 그리고 Kim Byong Sik 1970을 참조.
- 8) Leo Festinger가 발전시킨 Cognitive dissonance analysis 技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個個 韓國人들은 38度線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에 同數의식을 갖고 있으나 그 制度에 관해서는 否定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三角關係가 성립된다.



相對方의 制度를 받아들여게 되면 그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五列이 된다. 또는 相對方의 住民을 거부해 버리고 그들을 韓國人으로 간주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独逸

과는 달리 韓國人들간에는 이런 경향이 별로 없다. 또 위의 三角關係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相對方體制를 망각해 버림으로써 民族的 單一性만을 강조하는 시기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은 오래가지 못할것이다.

- 9) Galtung, Forthcoming, 제 6 章에 상세히 分析되어 있음.
- 10) Galtung 1972C 참조
- 11) 共同聲明全文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5 Ouly 1972 pp.1 ~ 2 참조
- 12) Galtung 1970. Galtung 1972 a 및 Yung-Hwan Jo & S. walhen 1972. 참조
- 13) Galtung 1972 b, 才 7 章 참조
- 14) 오늘날 「유럽」에서도 중상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으나 「유럽」人들은 冷戰絶頂期와는 달리 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 15) 韓國의 李厚洛 情報部長은 頂上會談이 아직 時期상조라고 말하면서 그단계에 이를 몇가지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감탄할만한 점진적 접근방식이다. 사실 공동성명은 聯습과 平和共存에 관한 敎課書라고 할만하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5 uly (1972. p.2)
- 16) 國內여행의 自由가 國家形成의 주요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들은 經濟力이 없어 여행에 제약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17) 「아시아」와 「유럽」이 政治的 事情만 다를 뿐 아니라 政治的文化 ( Political culture ) 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깨우쳐준 Kinhide Mushakoji 에게 감사한다.



## 機能主義的 統一接近方案

梁性喆 博士

本論文은 美 Eastern Kentucky 大學  
의 梁性喆 教授가 1972年 1月 28-29日  
Mary Washington College of the Univer-  
sity of Virginia 主催 Southeastern Con-  
ference on Asian affairs에서 發表한 것이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PHYSICS DEPARTMENT

PHYSICS 439: QUANTUM MECHANICS  
PROBLEM SET 10  
DUE: 11/11/2015

## 概 要

『…平和的 方法을 통해서 統一, 獨立 및 民主的 韓國을 수립하기 위한 目的達成을 위한…協助…』 1954年4月27日 「제네바」會談에서 행한 卞榮泰 韓国外務部長官의 開幕辭에서 (文書番号 第1号)

『…平和的 方法을 통해서 統一·獨立 및 民主國家로서의 朝鮮을 統一하기 위한 과업을 조속히 타결짓기 위한… 諸般條件들…』 1954年4月27日 「제네바」會談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代表 南日이 제출한 提案에서 (文書番号 第2号)

『…相互間에 서로를 약간 信賴하고 實質的이 되도록 노력하자…』 1954年5月11日 「제네바」會談에서 행한 「M·스파크」 「벨기에」外相의 演說문에서 (文書番号 第12号)

## 第 1 章 序 論

1945년에 韓國이 人爲的으로 分斷된 이래로 南北韓의 政治指導者들과 그 밖의 關聯勢力들은 平和的 方法을 통해서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國家를 수립할것을 다같이 수차례 걸쳐서 촉구해 왔었다. 表面上으로 볼때에 韓國統一問題에 관해서 南北韓이 根本的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實際的으로는 南北韓의 統一方式은 全다 非妥協的이고 融通性이 없고 非現實的인 것이었다.<sup>1)</sup> 더군다나 南北韓간의 武力競爭은 감소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계속 증달음질치고만 있었다.<sup>2)</sup> 따라서 南北韓간의 敵對關係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韓國問題는 말로만 表明되어온 平和統一과, 1950 - 53 年の 韓國動亂때 行動으로 표시된 武力統一간의 필연적인 矛盾性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不斷히 계속되고 있는 각종 挑發事件들은 그와 같은 矛盾性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韓國統一에 관한 美辭麗句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敵對的인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實은 아직도 尚存하고 있다. 1971年 8月 20日에야 南北韓의 赤十字社 代表들은 1천 1백만 離散家族問題에 관한 人道主義的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25年만에 처음으로 會談을 열었다. 이 南北赤十字 會談은 1971年 11月까지 板門店에서 13次의 會議를 가졌다. 이 會談



은 구체적인 成果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모튼·아브라모비치」는 이것은 『根本적인 政策轉換이라기 보다는 최초의 事態들에 対処할 수 있는 國內의 政治的 調整을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大韓民國이 취한 이 「이니셔티브」는 韓國問題의 解決을 指向한 최초의 重大한 措置로서 부각되었다.

本稿는 韓國統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근본적 疑問들을 제시했다.

韓國問題는 지난 4半世紀 동안에 왜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했나? 만약에 이와 같은 膠着狀態를 解明할 수 있는 歷史的 端緒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措置는 무엇인가? 다음은 이러한 疑問들에 대한 약간의 初步적인 解答을 시도해 본 것이다.

## 第2章 韓國問題：5個의 共通的誤謬

지난 4半世紀 동안에 韓國問題가 進展을 이룩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國際共產主義陰謀』나 또는 『美國資本帝國主義』나 하는 따위의 旧態依然한 宣傳的 犧牲物 主義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共通的인 誤謬 혹은 誤解나 誤導된 政策的 假定과 政策들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의 誤謬는 『強大國症』이다. 일반적으로 『症床』은 이른바 弱小國家의 지도자들이 根本的인 國際問題의 해결에 있어서 強大國들이 참여할것을 지나치게 기대할 때에 발생한다. 이와는 반대로 이 症床은 또한 強大國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問題의 解決에 대한 弱小國家들의 能力을 過少評價할 때에도 발생한다. 이리하여 強大國들에 대한 弱小國家들의 能力을 過少評價할 때에도 발생한다. 이리하여 強大國들에 대한 弱小國들의 지나친 依存과, 弱小國家의 內政에 대한 強大國들의 지나친 介入에 의해서 惡循環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症床은 韓國지도자들(및 知識人들)이 統一問題가 그들의 根本的인 責任인 동시에 韓國民들 자신의 最大 關心事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 자연히 나타났다. 韓國지도자들은 統一問題에 있어서 美國과 「유엔」, 그리고 기타 強大國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했으며 北韓지도자들도 蘇聯과 中共의 역할을 과장했다.<sup>5)</sup>

말할 필요도 없이 韓國의 解放과 韓國分斷, 그리고 韓國動亂 등에

대한 美國・「유엔」・蘇聯 및 中共의 간여는 至大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은 日本과 더불어 韓國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아직도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外部勢刀의 영향력 행사에 상관없이 韓國問題는 韓國民들 자신의 가장 우선적이고도 첫째가는 問題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설사 共產側 主張… 統一問題는 韓國民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內部問題라는<sup>6)</sup>…의 배후동기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주장자체는 挑戰할 수 없는 真理인 것이다.

두번째 誤謬는 『現實-神話混合』<sup>7)</sup>이다. 이 混同은 操縱者(지도계층)와 被操縱者(일반대중계층)가 現實과 眞實을 神話와 허위로 混同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난다. 일반대중계층이 現實과 神話を 混同하는 것은 지도계층의 集中的이고도 組織的인 宣傳과 抑壓的인 계획으로 인해서 야기된다. 한편 指導階層의 混同은 마치 순진한 아이를 진창속에 빠지고마는 惡童의 경우처럼 그들이 操縱과 統制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던 모르던간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混同은 韓國問題의 여러 分野에서 나타나고 있는 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北으로 부터의 侵略이 切迫하다<sup>8)</sup>는 韓國측 주장과 南으로부터의 侵略이 臨迫했다는 北韓측 주장

② 北韓을 地獄으로 묘사하는 韓國과 韓國을 地獄으로 묘사하는 北韓

③ 李承晩 前大統領의 滅共政策이나 혹은 朴正熙大統領의 勝共政策이나간에 反共을 國是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韓國과, 이와

마찬가지로 共產主義를 철두철미한 公式思想으로서 信奉하고 있는 北韓

④ 北韓政權을 『蘇聯 또는 中共의 傀儡』라고 호칭하는 韓國과, 韓國政府를 『美帝國主義의 走狗 또는 앞잡이』라고 부르는 北韓

⑤ 中立統一方案(즉 金三奎와 金龍中의 案)<sup>9)</sup>을 『천진난만한 수작 또는 親共產主義 수작』이라고 낙인찍고 있는 韓國과, 이와 같은 案을 『反動主義的 策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北韓

⑥ 北韓에 降伏하는 일 이외에는 武力統一(즉 李承晚 前大統領의 『北進統一』政策)만이 生存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이라는 韓國과, 統一을 달성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南韓人民들이 民族解放을 위해서 大衆革命鬪爭을 전개하는 길뿐이라는 北韓측 주장

⑦ 적어도 心理的으로는 서울과 平壤간의 거리보다는 서울-「워싱턴」-東京간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韓國內에서의 「이미지」造成과, 平壤과 서울간의 거리보다는 平壤-「모스크바」-北京간의 關係가 더 가깝다는 北韓內에서의 「이미지」造成

이와는 反對로

① 韓國戰爭이래 지난 19年동안 南北韓간에는 큰 戰爭은 없었다. 軍事的으로 볼때에 이 期間중에 韓國은 北韓에 대해 守勢的인 위치에 있으며, 北韓은 비록 挑撥的이긴 하나 다시 戰爭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② 南韓이나 北韓의 대다수 國民들은 地獄같은 條件下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굶주리지는 않고 있다. 朴正熙大統領 支配下の 韓國은 비록 都市와 農村간의 격차가 더욱 擴大되고 부패와 파벌주의 및 抑壓的 措置들이<sup>12)</sup> 強化되긴 했어도 經濟成長을 촉진시켰다. 한편 金日成 支配下の 北韓은 그의 組織化되고 高度로 個人化된 領導力을 더욱 強化시켰으나 『오랜동안 억눌려 있는 보다 나은 生活水準<sup>13)</sup>에 대한 要求』는 아직도 未解決狀態로 남아 있다.

③ 南韓의 反共主義와 北韓의 共產主義는 南北韓 指導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만치는 그렇게 철두철미한것은 아니다. 「브르제진스키」와 「헌팅튼」이 주장한것<sup>14)</sup> 처럼 이와 같은 2個의 思想이 한점에서 一致되기는 아직은 너무 時期尚早이며 또 그와 같은 추측을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할런지는 몰라도 현재의 東西 和解傾向을 論外로 치더라도 南北韓의 共存은 現實的인 것이다.

④ 南北韓은 마치 주전자가 남비를 보고 짐다고 하는 식으로 서로 『走狗』라고 욕하고 있다. 韓國에 대한 美國의 介入이 감소(즉 駐韓美軍撤収)되어감에 따라서 韓國은 政治的 行動에 대한 그의 獨自的 自由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北韓도 역시 中-蘇 紛爭을 利用한 교묘한 政治的策略을 통해서 그의 軍事的 및 政治的 獨自路線을 상당히 강화했다.

⑤ 그리고 이제 武力統一 方案은 中立化 統一方案과 마찬가지로 천진난만하고 誤導된 統一方案이 되었다.

⑥ 서울과 平壤간의 거리는 불과 2백「마일」도 되지 않는다.

세번째의 誤謬는 『体制的 幻想』이다. 이 体制的幻想이란 두개의 相異한 体制가 쉽게 서로 統合될 수 있을 것이라는 先入見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幻想은 統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希望을 쉽게 가지도록 만든다. 南北韓 政府나 個人들(例를 들어서 金三奎, 金龍中, 「마이크·멘스필드」 上院議員, 「윌리엄·폴브라이트」 上院議員 같은 이들)이 제안했거나 또는 지지한 사실상 모든 統一方案들은 비록 분명하게 밝히고는 있지 않지마는 적어도 은연중에서나마 韓國問題의 조속한 解決이나 즉각적인 政治的 解決을 시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즉각적인 政治的 내지 軍事的 解決이 아니라 歴史的 및 漸進的인 接近이 韓國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解答인 것이다.

体制的 幻想과 관련한 또 하나의 過誤는 語義的 模糊性이다.<sup>16)</sup> 그 일례로서 韓國측이 주장하고 있는 『平和的 方法을 통한 統一, 獨立, 民主的 韓國의 수립』이라는 提案은 표면상으로는 北韓측이 주장하고 있는 『平和的 方法을 통한 統一, 獨立, 民主的 國家의 수립』이라는 提案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統一, 獨立, 民主主義 및 平和的 方法이라는 말의 意味와 方法은 南北韓간의 政治·經濟的 体制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4 번째의 誤謬는 南北韓의 政治 指導者들이 韓國問題를 그들의 國內政治体制와는 別個의 上位位置에 올려놓지 않는데 있다. 이와 같은 誤謬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① 韓國問題에 대한 最善의 唯一한 解決策은 北韓이 韓國측의 政治的 高집과, 이와 正反對되는 北韓측 高집

② 南北韓 지도자들이 統一을 실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共通目標의 결여

③ 南北韓 政府가 각각 내세우고 있는 公式的 統一條件 이외의 統一方案을 제안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方案을 지지하는 人士들을 韓國측에서는 『親共分子들』 그리고 北韓측에서는 『反動分子들』이라고 낙인찍고 迫害하는 政治的 頑固性

④ 政治指導者들을 같은 韓國同胞로 보기에 앞서서 韓國에서는 北韓政治 지도자들을 『蘇聯 또는 中共의 傀儡』나 혹은 共產主義者로 보는 반면에 北韓에서도 韓國政治 지도자들을 『美帝國主義의 앞잡이 또는 쫓개』로 보는 사실

끝으로 南北韓 政治지도자들은 韓國問題의 政治的인 面을 非政治的 또는 『機能主義的』 범위로 부터 分離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技術的, 文化的 및 人道主義的인 問題들을 무시하고 政治的 解決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런지도 모른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政治的 및 非政治的 分野는 실제적으로는 서로 너무도 밀접히 얽혀 있어서 이것을 區別해 낸다는 것은 비록 不可能한 일은 아닐런지는 몰라도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非政治的 分野에 대한 南北韓간의 協助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上述한 점을 감안할 때에 韓國問題는 주로 南北韓 共通的인 誤導된 政策的 假定과 諸般政策들로 인해서 별로 進展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上述한 共通的인 誤謬들을 補完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政策的 假定과 諸般政策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敵對的인 두개의 韓國』이 앞으로도 4半世紀 동안이나 더 存続될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政策的 假定과 諸般政策를 모색하기 위해서 本稿에서는 機能主義的인 接近方法을 제시했다. 機能主義的 方法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韓國分斷의 歷史的 背景을 略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第3章 獨立과 分析 : 그 背景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흔히 引用되고 있는 口號와는 정반대로 分斷된 韓國은 1945年 이래로 이 分斷狀態를 확고히 지속해 오고 있다. 南北韓은 이와 같은 口號에 충실히 따르기라도 하듯이 서로 확고부동히 버티오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발이 아닌 남의 발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간에 分斷 韓國은 하나의 既定事實인 것이다.

韓國의 分斷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 聯合軍이 거둔 승리의 產物이며, 韓國人들은 사실상 獨立에 대한 代價로서 分斷이라는 값을 치른 셈이다. 韓國의 分斷이 聯合軍측 強大國들의 『既定된』 產物인지, 아니면 여러 文獻에<sup>17)</sup> 나타나고 있듯이 文字 그대로 暫定的인 軍事分界線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까지도 분명치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韓國獨立에 대한 이 代價가 『暫定的』인 것인지, 아니면 『永久的』인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暫定的』이라는 單語가 數十年이 아닌 數個月 혹은 數年間의 期間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暫定的 軍事分界線 또는 暫定的 分斷이라는 見解는 옳지 못한 생각인 것이다.

韓國의 獨立과 그 뒤 韓國의 分斷을 가져오게 한 일련의 歷史的 事件들 - , 1943年의 「카이로」會談, 「포츠담」宣言文, 1945年의 「모스크바」會談 및 1947年의 「유엔」總會決議 - 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研究에 의해서 충분한 記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事件들이 내포하고 있는 意味에 관해서만 略述하고자 한다.

첫째, 兩当事者들—美國과 韓國지도자들 및 蘇聯과 北韓지도자들— 이 『누가 韓國을 分斷시켰는가』 혹은 『누가 統一을 방해했는가』하는 問題들에 대한 責任을 서로 轉嫁하고 있는 사이에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美國은 蘇聯이 『韓國에 관한 「모스크바」協定條項의 履行』<sup>19)</sup>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美·蘇 共同委員會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그 責任을 「모스크바」측에 돌리고 있다. 이에 반해서 蘇聯측은 美國이 『韓國에 진정한 民主政府를 수립하는 것을 支援할』<sup>20)</sup>의 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美國측에게 그 責任을 돌리고 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南北韓지도자들도 統一妨害의 責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統一, 獨立, 民主的 韓國을 수립하려던 美國과 蘇聯의 진정한 目的은 消滅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統一問題를 思想的 차이와 자질구레한 政治的 利害關係를 초월한 上位에 올려 놓기 위해 투쟁해온 이른바 南北政治協商主義者들도 政治무대에서 사라져 갔다.<sup>21)</sup>

둘째, 韓半島의 政治지도자들은 韓半島問題의 解決에 대한 主導權을 상실했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나친 強大國症의 우세는 統一을 지연시킨 한 요인이었으며 이로써 事實上的 두개의 韓國을 永続化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政治분석가들은 韓半島의 政治지도자들이 強大國症이라는 呪文에 왜 홀리게 되었으며 또 왜 홀리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틀린것은 아니지마는 韓國이 地政學的으로는 弱小國이고, 政治的으로는 不安定하며, 經濟的으로는 貧困하고, 軍事的으로는 弱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즉, 韓半島는 日本, 中國 및 蘇聯이라는 3개의 (전통적인) 領土膨脹主義 強大國들에 의해 둘러 싸여져 있으며, 따라서 韓國은 이들중 어떤 나라나 또는 다른 『超強大國』, 즉 美國으로부터 領土保全과 政治的 獨立에 대한 어떤 保障을 받기 전까지는 이中 어떤 한 나라나 또는 세나라 모두의 희생물이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다.<sup>22)</sup> 問題는 그와 같은 주장이 一見해서는 틀린 것이 아닐런지는 몰라도 分斷 또는 統一된 韓半島는 南北韓의 政治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것 처럼 그렇게 弱小하고, 不安定하며, 無能하고, 貧困하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囚人の 「딜레마」』<sup>23)</sup> 에 나타난 해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國의 政治지도자들은 韓國問題에 대한 그들 자신의 解決能力을 거의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과소 평가해 왔다. 이리하여 그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韓國問題의 解決을 『4大強國』, 즉 美國, 蘇聯, 中共 및 日本의 処分에 맡기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sup>24)</sup>

이와 같은 強大國症의 根源은 韓國의 歷史로 거슬러 올라갈 수

가 있을 것이다. 이 根源은 三國時代의 王朝 가운데 하나인 新羅가 西紀 六六〇年에 三國을 統一할 수 있었던 方法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이 問題에 관해서는 新羅統一이 갖는 두가지 意味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中國과의 이 同盟關係는 韓國政治史上 처음으로 外勢를 政治에 介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新羅軍隊는 唐나라 軍隊의 支援을 얻어 高句麗와 百濟를 멸망시켰다.

② 羅唐提携에서 招來된 막대한 領土의 손실은 東「아시아」에서 中國 및 日本과 더불어 3強國의 위치를 누리고 있던 韓國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領土범위가 北韓과 滿洲까지 달했던 高句麗王國의 멸망은 사실상 統一의 代價로 滿洲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新羅統一 이래로 3強國의 일원으로서의 韓國의 地位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러번 시도되었었지만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25)

新羅統一이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意味들은 近代強大國들—中國, 蒙古, 日本, 蘇聯, 美國—과 提携한 韓國의 政治勢力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 韓國의 政治가 事大, 慕華, 親日, 親露 및 親美思想에 물들게 된 이유, 그리고 金九와 金奎植이 주동이 된 南北 政治協商이 실패한 이유<sup>26)</sup> 등을 풀수있는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韓國의 獨立과 分斷의 責任을 어떤 集團이나 個人에게 돌리는 것은 모든 問題중에서도 가장 중요치 않은 問題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強大國症에 관한 歷史的 根源을  
캐는 것도 중요한 일은 아니다. 韓國問題의 解決이라는 至上命  
題는 責任轉嫁 또는 逆轉嫁 따위의 政治的 장난으로 부터는 超  
越해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지도자들과 기타 強大國들은 그와 같은 쓸데  
없는 政治的 장난을 추구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非生産的  
인 論爭대신에 建設的인 討論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 韓國統一에 관한 한 代案으로  
서 다음과 같은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을 제시하는 바이다.

#### 第 4 章 韓國統一：機能主義의 方法

「어네스트·하스」는 그의 刀著에서 그의 이른바 『波反 (Spillover)』過程<sup>27)</sup>을 통한 國際機構 統合方法으로서 機能主義의 接近方法을 제시했다. 「하스」와 다른 學者들(D·「미트라니」, K·W·「도이치」, L·M·「린드버그」, B·M·「루세트」, A·「에치오니」)의 方法들은 주로 超國家的 내지 國際的 統合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은 本稿의 機能主義의 接近方法은 國際的 統合, 즉 韓國統一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機能主義란 政治的인 分野를 非政治的인 分野로부터 分離시키고<sup>29)</sup> 政治的인 分野를 덜 強調하는 반면에 非政治的인 分野를 強調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韓國統一에 대한 機能主義의 接近方法이란 韓國問題에 관한 非政治的 또는 非論争的인 分野를 최대한으로 利用하는 한편 政治的인 分野를 최소한으로 利用하여 統一을 實現해 보려고 하는 方法 또는 過程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機能主義는 福祉로부터의 權力의 分離, 福祉指向的 事業(經濟的 豊饒)으로부터의 權力指向的 事業(軍事防衛)의 分離, 專門學的 課業으로부터의 政治學的 과업의 分離, 그리고 『忠誠心の 多元化』(어느 누구도 단 하나의 忠誠心を 가질 수 없고 여러개의 忠誠心に 관여하고 있다)<sup>30)</sup> 등 4가지 요소가 分離可能하다는 假定에 立脚하고 있다.

확실히 말해서 価値觀(權力, 福祉), 事業(權力指向的 또는 福祉指向的), 技術(政治家의 과업과 專門家의 과업), 그리고 感情

(個人에 대한 충성과 集團的 實체에 대한 충성) 등은 理論上으로만 그 分離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서로 너무 밀접히 얽혀 있어서 分離하기가 곤란하다. 機能主義의 이 可分性傳説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組織체가 超國家的 統合의 地位를 成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바의 政策指標일뿐, 組織체의 政策記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에 韓國問題의 政治的 領域은 그 非政治的인 領域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또한 韓國의 價值觀, 課業, 技術 및 感情등도 區別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機能主義의 方法에 관해서 기껏해야 韓國問題의 政治的 領域을 덜 強調하고 非政治的 領域을 더 強調하기 위한 指標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事實에 따라서 4個의 一般的인 可分性假設이외에도 특히 韓國問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假定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 假 定

### 1. 責任의 分離

1 : 1 機能主義者는 韓國問題의 對外的인 責任과 對內的인 責任을 分離시킨다.

1 : 2 機能主義者는 1次的인 責任과 2次的인 責任을 分離시킨다.

1 : 3 機能主義者는 对内的 当事者들—韓國人들, 특히 南北韓의 政治지도자들—이 韓國問題에 대한 1次的 參加者들이고 对外的 当事者들—美国, 蘇聯, 中共, 日本, 「유엔」 및 기타—은 2次的 參加者들임을 확인한다.

## 2. 神話와 現實의 分離

2 : 1 機能主義者는 合法性, 즉 大韓民國이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韓國측 주장과, 『유엔이 韓國을 창설한 것은 不法』이라는 北韓측 주장으로 부터 事實上的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實을 分離시킨다.

2 : 2 機能主義者는 南北韓이 자기 주장하는 『公式的인 自己美化』와 南北韓의 實生活을 區別한다.

2 : 3 機能主義者는 南北韓政府가 자기 주장하는 『公式的 統一方案』과 다른 個人이나 集團的 實體들이 제안하는 統一方案을 区分한다.

## 3. 問題의 分離

3 : 1 機能主義者는 韓國問題를 南北韓政府의 思想과 体制的 차이를 초월한 上位에 올려 놓는다.

3 : 2 機能主義者는 韓國問題의 政治, 思想 및 軍事的 分野를 非政治的, 文化的, 技術的, 經濟的 및 人道主義的 領域과 區別한다.

3 : 3 機能主義者는 韓國問題에 있어서 비교적 조속한 政治的 解決을 要하는 分野와 漸進主義的 政策과 歷史的 運動



을 要하는 分野로 區別한다.

#### 4. 政治勢力과 要素의 分離

4 : 1 機能主義者는 韓國問題의 解決을 爲해 作用하는 政治勢力과 要素들을 韓國問題의 解決에 妨害가 되는 政治勢力 및 要素들로부터 分離시킨다.

4 : 2 機能主義者는 南北韓內에 있는 그와 같은 勢力들과 要素들을 가려낸다.

4 : 3 機能主義者는 外部에 있는 그와 같은 勢力과 要素들을 확인한다.

#### 統一의 機制 : 『竝行方式』 ( Two Track Formula )

앞에서 說明한 可分性 假定에 따라서 機能主義者는 竝行方式을 통해서 韓國問題의 解決을 企圖하게 된다. 이 竝行方式은 長期目標과 短期目標, 歷史的 運動과 早期解決, 그리고 政治的 問題 및 非政治的 問題와 같은 일련의 二重性을 내포하고 있다.

現存하는 모든 統一方案 속에는 두가지 障礙要因, 즉 韓國問題를 一括的으로 解決하거나 혹은 現狀體制를 그대로 지속시키려는 확고부동한 方式과, 政治的 問題들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이것을 그밖의 모든 다른 問題들의 解決을 위한 條件으로 삼으려는 方式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韓國政府는 「유엔」監視 아래 人口比例 代表制에 입각한 自由總選舉를 통해서 統一政府를 수립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해 오고 있다.<sup>31)</sup> 한편 北韓政權은 韓國問題 解決의 前提條件으로서 駐

韓「유엔」軍 撤収와 「언커크」(「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 解体를 주장하고 있다.<sup>32)</sup> 이와 같은 南北韓 상호간의 非妥協的인 태도는 韓國問題가 그간 아무런 進展도 이룩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47年의 第2次 總會로부터 1971年의 第26次 總會에 이르기까지 24번이나 「유엔」 總會에 제안된 똑같은 내용의 旧態依然한 韓國問題決議案을 계속해서 채택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韓國問題가 「유엔」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모두 상실했으며 단지 의례적인 年中行事로만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個人이 제안한 統一方案들은 앞에서 지적한 障礙要因들 때문에 弱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례로서 金三奎와 金龍中은 中立化 統一을 지지했다. 金三奎는 民族自決에 입각한 中立化를 강조한 반면에, 金龍中은 「유엔」과 인접 強大 國들이 中立韓國의 獨立, 主權 및 領土保全을 保障할것을 강조했다.<sup>33)</sup> 이와 마찬가지로 「마이클·맨스필드」 美上院議員과 故 「드골」 「프랑스」大統領도 각각<sup>34)</sup> 『오스트리아式 統一』과 『中立 統一』方案을 제의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sup>35)</sup>도 根本적으로 이와 유사한 統一方案들을 제의했다. 비록 이러한 個人的 統一方案들이 그 強調點, 形態 및 意圖에 있어서 서로 差異가 있긴 했어도 政治的인 解決을 촉구한 점에 있어서는 共通的이고도 명백했다. 나아가서 그들은 公式的 혹은 非公式的으로 政治問題를 다룬 모든 問題의 解決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삼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統一方案은 南北韓政府의 統一方案들과 별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볼때에 竝行方式은 우선 長期目標와 短期目標로 区分된다. 韓國問題의 長期目標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統一, 獨立, 自由韓國을 실현하는데 있다. 短期目標은

① 南北韓간의 政治—思想 및 軍事的 緊張關係를 완화하고

② 이와 같은 目標에 대해 妨害를 하는 (또는 妨害해온) 要因과 努力들을 根絶하는데 있다. 前者에 있어서는 相互간에 各種의 争点과 價值觀들을 『非政治化』 내지 非極大化 시키고, 武力을 減縮 내지 非武裝化할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措置는 暴力의 手段에 의존하지 않고도 重要政治價值觀 (두개의 思想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의 적합성, 相互予測性, 그리고 相對方의 「메시지」, 必要事項 및 行動에 対応할 수 있는 能力을 높여주게 될것이다. 이것은 「도이치」가 말하는 『多元的 安保 共同体』<sup>36)</sup> 의 3大條件을 이루는 것이다. 後者は 政治的, 官僚的, 企業的 및 知識人 (言論人 포함) 의 부패, 그리고 社会的 不正의 根源과 行爲들을 漸進的이면서도 組織的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冷戰』 精神狀態를 가진 政治集團들을 『民族主義的』 열망에 차있는 사람들로 漸進的이고 組織的으로 交替하는 것을 의미한다.

政治指導者들을 冷戰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集團과 民族主義的 열망을 가진 集團등 2個集團으로 人爲的으로 分類하는 데에는 간단한 說明이 필요하다. 冷戰精神狀態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紛争誘導的』 思考方式, 즉 내가 상대방을 쫓치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쫓치던가 둘중의 하나라는 思考方式이다. 그것은 또한 『零和

게임』의 思考方式으로서 내가 敵을 이기던가 敵이 나를 이기던가 또는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따는 金額은 상대방이 잃는 金額과 꼭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그것은 『兩端간에』라는 思考方式으로서 내가 상대방의 條件에 응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條件에 응하던가 兩端간에 하나라는 思考方式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民族主義的 熱望은 『協助誘導的』思考方式, 즉 나와 상대방이 어떤 目的을 위해서 임한다는 생각인것것이다. 이것은 또한 『非零和게임』의 思考方式으로서 비록 내가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또는 비록 내가 탄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그것은 『多小 間に』라는 思考方式으로서 내가 상대방의 條件에 다소 동의하며 상대방도 나의 條件에 다소 동의 한다는 思考方式이다.

政策的인 面에서 볼때에 民族主義的熱望을 固守하는 政治集團은 冷戰精神狀態를 가지고 있는 政治集團들이 항상 추구해 온것과 같이 상대방을 파괴하고, 비난하며 不認하거나 또는 國際社會로 부터 孤立시켜 가면서 韓國問題를 解決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37)

다음 竝行方式은 歷史的運動을 長期目標로 보고 緊張緩和와 反統一的要素 및 勢刀의 除去라는 短期目標들 最우선적으로 解決해야 할 과제로 본다. 『내 提案을 수락하던가 아니면 집어 치우라』는 식의 政策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当面한 要素와 勢刀들을 먼저 除去하지 않고서는 南北韓이 각기 주장하는 統一條件이나 혹은 中立化를 통한 統一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맨스필드」上院

議員이 적절히 지적한대로 『始發點은 領土分界線을 철폐하기 위한 場所, 時間 및 方法등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할것이다』<sup>38)</sup> 이 始發點은 統一問題 바로 그 自体를 파고 드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서도 안된다) 反統一的要素들과 努力들을 除去할 方法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赤十字 予備會談이 별 進展도 보지못하고 어두운 전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會談이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統一達成에 관한 短期目標와 南北韓 各자의 現安 保計劃간에 發生할지도 모를 혼란에 관해서 언급해 볼까한다.

韓國側은 北韓에 대한 軍事力均衡 또는 優位維持와 美國의 保障 美·日의 保障 또는 4大強國의 不可侵 및 不干涉條約<sup>39)</sup>을 통한 戰爭阻止方法을 보장하는 일이 앞에 설명한 短期目標들에 先行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點은 統一達成에 관한 短期目標들이 韓國과 北韓의 安保計劃과 반드시 相馳되는 것은 아니며 또 相馳되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竝行方式은 上記 短期目標들의 問題分野를 政治的인 問題와 非政治的인 問題로 区分하고 非政治的인 分野를 최우선적으로 취급한다.

특히 南北韓總選案, 全韓國政府 및 憲法構造, 韓國과 北韓의 合法性, 美國, 蘇聯 및 「유엔」의 責任에 관한 法的根拠, 條約의 破棄와 無効化, 非武裝化, 中立化, 聯邦制 및 『4大強國保障』의 條件등을 追求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앞서서 南北韓간의 會談은

南北赤十字代表들이 追求해 왔던 것과 같은 人道主義的 問題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南北은 「스포츠」, 藝術 및 기타 文化的 活動分野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야 한다.

南北韓의 体育人과 藝術人들이 國際社会에서 각각 南北韓의 代表로서 뿐만 아니라 全体韓國을 代表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自由로운 書信왕래, 自由로운 旅行, 自由로운 通行, 그리고 自由로운 訪問등을 가로막는 (가로막고 있는) 障壁을 除去 또는 除去하도록 힘써야 한다. 電話, 電信 및 「매스·미디어」가 全國을 통할 수 있는 手法을 開發 또는 開發하도록 企圖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貿易을 開設, 擴張하고 相互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工業品과 商品, 技術 및 手段들을 교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歴史的, 文化的, 言語的 및 民族的 共同遺産을 高揚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실속있고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너무 간단하고도 理想的인 것으로 보일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일들은 간단하고도 理想的인 것으로서는 너무나 실속있고 실질적인 것일런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누가 그러한 일들을 始作 또는 推進할 것인가?』라는 核心的인 問題가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南北韓의 政治指導者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만약에 그들이 統一計劃을 수행할 能力이 없거나 또 그러한 意思가 없다면 韓國人들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能力과 意思가 있는 새로운 指導者들을 選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韓國人들은 統一問題에 대한 基本的인 責任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韓國問題가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은 政治指導者들이 解決을 시도했다가 失敗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事實때문인 것이다.

## 第 5 章 結 論

戰後處理問題에 있어서 人爲的으로 分斷된 獨逸, 韓國 및 越南은 일련의 政治的 鬭爭과 軍事的 對決을 치루었다. (치루고 있다)

獨逸에서의 1·2次 「베를린」危機<sup>40)</sup> 1950-53년의 韓國動亂과 그후 不斷히 계속되고 있는 南北韓간의 挑發事件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베트남」解放戰爭(1946-54)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越南 내지 「인도차이나」戰爭들은 그와 같은 事實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들 세나라 가운데 獨逸만이 東西獨간의 緊張關係를 緩和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4大國 「베를린」協定과 東西獨간의 「베를린」通行協定, 그리고 東西獨의 「유엔」加入 가능성등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스포츠」, 晝信왕래 및 기타 文化的 活動分野의 協力은 말할것도 없고 獨逸問題에 새로운 突破口를 마련케 했다. 한편 南北韓 赤十字代表들은 이제 막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을 위한 豫備會談을 개시했다. 越南에서는 戰爭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

확실히 말해서 獨逸問題는 獨逸과 韓國이 聯合強大國들에 의해서 分斷되었다는 한가지 事實만을 제외하고는 많은 點에서 韓國問題와는 다르다. 獨逸은 第2次 世界大戰의 敗戰國이지만 東西獨은 經濟的 發展을 이룩했으며 軍事的으로도 인접국가들은 물론 世界的 潛在的인 威脅에도 對處할 수 있을만치 충분히 強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韓國은 日本으로부터 解放된 말하자면 第2次 世界大戰

의 受惠國인 셈이지만 南北韓은 아직도 低開發狀態에 있으며 軍事  
적으로도 인접국가들을 潜在的으로나 實質적으로 威脅할만한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더욱 重要한 사실은 西獨이 東獨을  
끌어당기는 磁石<sup>42)</sup>인데 반해서 韓國은 北韓을 끌어당기는 磁石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獨逸問題의 進展은 비록 구체적인  
行動案은 될수 없을지 모르나 韓國問題에 대해서 두가지 政策的인  
方向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共產主義와의 協商은 패배 또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과는 反對로 武力이 아닌 協商이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合理的인 方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프란츠·요셉·  
스트라우스」가 지적한대로 武力手段에 의한 統一이란 『墓地속의  
統一』<sup>43)</sup>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政治的인 미치광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와 같은 政策을 고려하거나 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  
을 것이다.

둘째, 膠着狀態로부터 脫皮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分斷國家의  
指導者와 國民들 스스로가 雙務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약 11年前에 「한스·모겐소」는 獨逸統一問題가 마치 日氣와  
같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즉, 누구나 다 日氣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아무도 日氣에 관해 손을 쓰지않고 있는데 그것은  
日氣에 관해서는 모두 束手無策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4)</sup> 그의  
이러한 類推法은 이미 價值를 상실한지 오래다. 왜냐하면 獨逸지  
도자들과 國民들은 그들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



여주었으며 또 어느정도의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한가지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다. 즉 韓國과 北韓指導者들은 현재의 膠着狀態를 타개하기 위해서 第三者가 「이니셔티브」를 취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自身이 漸進的인 方法을 통해서 이를 解決해 나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南北韓이 『敵對的인 두개의 韓國』을 또다시 4半世紀 내지 그 이상 지속시킬 결의를 갖고있지 않는 이상 解答은 분명히 後者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 註 釋 ]

註1) 지난 20여년동안 韓國은 근본적으로 人口比例代表制에 입각한 「유엔」監視下의 自由總選舉를 통해서 統一政府를 수립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해왔다.

같은 期間동안에 北韓은 韓國問題解決의 先決條件으로서 韓國內의 모든 外軍撤収와 「언커크」(「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의 解体를 요구했다. 1947年 9月16日-11月29日 第2次 「유엔」總會 公式記錄 pp.16 - 18中 1947年 11月14日字 「유엔」韓國臨時委員會設置 및 韓國統一計劃樹立에 관한 「유엔」總會決議 참조. 1954年 「제네바」會議-「인도차이나」와 韓國(「그린우드」出版社발행 1968, 「뉴욕」) pp.53-54, pp.4-5, pp.58-59中 1954年 5月22日字 卞榮泰韓國外務部長官의 14個項提案(文書番号 第16号)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代表 南日의 1954年 4月27日字 3個項提案(文書番号 第2号) 및 1954年 6月15日字 6個項提案(文書番号 第28号) 참조. 최근의 政策討論 論考로서는 1971 韓國外交(大韓民國 外務部발행, 1971, 서울)와 60年代의 韓國外交(大韓民國 外務部발행, 1971, 서울) pp.84-96 : 정인택著 韓國政府의 統一政策評價, 1948-1970(高大「아시아」問題研究所발행, 1971, 서울) : Kwan Sokperrin,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United Nations, 1945-55), 1971年 Utha 大学校 博士学位論文; B.C.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Praeger, New York, 1969) pp. 112-184 등이 있다.

註 2) 南北韓간의 軍事力 비교에 관해서는 [The Military Balance] 1971-1972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 参照 그리고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 Papers, No.80 (London, I.I. I.I.S.S. August 8) 을 참조

註 3) 최근의 挑戔事件에 관한 論考로서는 60年代의 韓國外交, pp.22-23 ; Morton Abramowitz, Ibid., pp. 17-18 을 참조할것

註 4) Morton Abramowity, Ibid.,

註 5) 그러나 비록 北韓도 根本的으로는 中共 및 蘇聯에 동조하고 있지만은 表面上으로는 이 問題에 있어서 보다 融通性이고 合理的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例로서는 B.C. Koh, Ibid., pp.112-184 ; Morton, Abranowitz Ibid., p.16 을 참조할것

註 6) 1954年 「제네바」會議 - 「인도차이나」와 韓國中 특히 1954年 4月28日字 中共首席代表 周恩來의 演說, p.58 ; B.C. Koh, Ibid., pp.112-184 참조.

註 7) 現實 - 神話混同이라는 의미는 Merton 의 『自己完成予言』과 매우 유사하다. Merton 은 『自己完成予言이란 말하자면 實情을 허위로 定義하여 이것이 本質的으로는 허위적인 概念을

眞實인것처럼 만드는 새로운 態度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R·K·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 Co, 1949, pp.184-193 中 John Kautsky, " Myth, Selfful filling Prophecy and Symbolic Reassurance in the East-West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IX, No. I (March 1965) P.I. 参照

註8) 李承晩大統領은 항상 그와 같은 警告를 발했었다. 『높이 불타오르는 韓國, 李承晩大統領의 声明요지, 1954 - 55 第1卷 및 第2卷 (大韓民國公報處, 1956 ; 서울) 참조. 최근 金鍾泌國務總理는 1971年 11月27日字 東亞日報에서 이른바 『冷戰速決』主義 (『電擊作戰』 또는 『20日戰爭』) 에 대해 警告했다.

註9) 金三奎는 지난 1952年이래 Korea Review, 서울新聞 (1960年 9月19日字), 思想界 (1961年 6月号) 등을 통해서 그의 中立化統一方案을 주장했다. 金龍中도 韓國의 소리 (1952年 3月1日, 1960年 10月3日, 1960年 11月) 를 통해서 그의 統一方案을 주장했다. 金三奎, 金龍中の 2個統一方案에 관한 요약된 冊으로서는 이래서 中立化統一이 韓國에서는 不可能하다 (公報部, 統一問題「시리즈」, 1965 ; 서울) 를 참조할것.

註10) 北韓은 統一方案등을수차 변경했다. 가장 최근의 統一戰爭은 『南韓人民들에 의한 救國革命鬪爭』이다. B·C·Koh Op cit,

pp. 142-143 및 Journal of Korean Affairs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 Silver Spring , 第1卷 第1号 (1971年 4月) 에서 引用한 「아브라모비치」同著 p.9 및 p.10 참조.

註11)北韓의 好戰性에 대한 中共의 制動的역할에 관해서는 Peking Review Vol XII No.15 (April 10, 1970) p.5 및 p.14 와 No.33 August 14, 1970) p.24 및 p.30 을, 그리고北韓의 好戰性에 대한 蘇聯의 制動的역할에 관해서는 U.S.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Soviet Union Vo III, No.131 pp. C8-C10, No.132, pp. C8-C10, 참조

註12) David Cole and Princeton Ligman, Korean Development ;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 (Cambridge ;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註13) 「아브라모비치」同著 p.2

註14)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 / USS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pp. 409-436

註15) 金三奎, 金龍中 및 「맨스필드」上院議員의 見解에 관한 요약된 冊으로서는 이래서 中立化統一이 韓國에서는 不可能하다 ; 統一研究「시리즈」(1965) 를 참조할것

註16) 「Ralph Ross」는 模糊性을 각 單語의 曖昧性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Symbols and Civilization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7 ; New York) pp.36-37

을 참조할것

註17) 美軍太平洋地区總司令部 1945年 9月7日字 公告文 第1号.

原文은 日本의 政治의 方向轉換, 1945年 9月부터 1948年 9月까지, 政府部門報告書, 聯合軍最高司令部 第2卷 p.453 참조. 또한 韓一美關係文書 1945-1965 (大韓民国外務部, 1965 서울) p.4 ; 조순성著 世界政治上的 韓國, 1940-1950 (「캘리포니아」大學出版部, 1967 ; 「버클리」) pp.1-60 및 pp.61-160 ; 「그레고리·헨더슨」著 韓國; 禍中속의 政治 (「하바드」大學出版部, 1968 ; 「케임브리지」) pp.113-147 을 참조할것. 이 問題에 관한 흥미있는 記事로서는 1971年 10月4日부터 시작된 東亞日報의 連載記事 『南北의 對話』 를 참조할것.

註18) 조순성同著 pp.1-60 ; 「그레고리·헨더슨」同著 pp.113-147 및 pp.153-162

註19) 「로버트」美國務長官署理와 「모로토프」蘇聯外相간의 交換書信 全文에 관해서는 國務省公報 1947年 9月7日字 pp.473-475, 1947年 4月20日字 pp.716-719, 1947年 8月10日字 pp.294-297 및 1947年 9月28日字 p.624 를 참조할것.

註20) 上 同

註21) 東亞日報 連載記事 『南北의 對話』 문창주著 韓國政治論 (一潮閣, 1965 ; 서울) pp.194-197 및 pp.198-258 참조

- 註22) 4大強國保障에 관한 韓國의 安保問題는 Abramowitz Ibid  
와 咸秉春著 『韓國과 「아시아」勢力均衡의 抬頭』  
Foreign Affairs 第50卷 第2号 (1972年1月) pp.339-  
350 에 言及되어 있다.
- 註23) Anatol Rapoport, Fighto Games, and Debate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173-179  
Anatol Rapoport and Albert M. Chammah, Prisoner's  
Pilemma (Michigian Press 1965)
- 註24) 咸秉春同著 pp. 339-350
- 註25) 震檀学会 (編) 韓國史 第1卷 (1960;서울) pp. 526-527
- 註26) 『南北의 對話』 東亞日報 連載記事
- 註27) Ernst B. Haas ,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4) pp.3-85
- 註28) P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 K.W.Deutsch  
및 [ S.A.Burrel ], Political Communi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 B.M. Russet, Community and Contention ;  
Britain and America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  
idge, The MIT Press, 1963) ;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New york )
- 註29) Haas , OP. Cit p.6
- 註30) 上同 pp. 21-22

- 註 31) 60年代의 韓國外交史 pp. 84-96.
- 註 32) K.C.Koh, OP. Cit, pp.112-184 ; 金병식著 近代韓國 ; 社會主義北韓, 北韓의 革命的藝術과 統一 (國際出版社, 1970; 「뉴욕」) p.225.
- 註 33) 이래서 中立化統一이 韓國에서는 不可能하다. pp. 13-25.
- 註 34) 上同 pp. 29-30 및 p.34. 東亞日報 1960年 11月 5日字 및 「뉴욕·타임스」 1964年 2月 1日字참조
- 註 35) 이래서 中立化統一이 韓國에서는 不可能하다에는 다른 見解들도 표명되어 있다. pp.25-29.
- 註 36) Kal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 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1965) p.196- Bruce Russet, OP.Cit,(pp. 208 - 221)
- 註 37) 60年代의 韓國外交史 pp.33-38 中 韓國의 外交政策指針과 1971 韓國外交 pp. 1-5 참조.
- 註 38) 東亞日報 1960年 11月 5日字
- 註 39) Abramowitz, Ibid, pp.339-350
- 註 40) 第 1, 2次 「베를린」危機는 Freclerick Itartmann, Germany Between East and West ; The Reunification Problem,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1965) pp. 30-35 및 87-104 참조  
『獨逸統一問題에 관한 全般的인 問題를 취급한 冊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ans Morgenthau, " The



Problem of German Reunific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330, (July, 1960) pp.24 참조. Franz Joseph  
Strauss, The Grand Desion ; A European Solution  
to German Reunification Trans. by Brian Connell  
(New york ; Frederick A. Prager, 1966) Calus Jacqbi,  
" German Paradoxes " Foreign Affairs Vol.37 ,  
No. 3 ( April 1959 ), Oscar Gass, " German Uniti -  
cation ; Prospect and Merits," Commentary , Vol  
XL ( July 1965 ) pp.26-34

註 41) The Courier - Journal and Times 1971年 12月12日字

註 42) 「아브라모비치」同著 p.21.

註 43) Frantz Joseph Strauss, Ibid, p.14

註 44) Hans Morgenthau, OP. Cit p.124



機能主義 및 國際政治的 統合理論에  
의 한 統一接近方案

吉榮煥 博士  
(유니아타 大學)

(1973년 1월 26-27일 美  
노드캐롤라니아州 分所在 아팔라  
치아州立大學校에서 開催된 아시  
아研究協會의 第12次東南亞地域  
年例會議에서 發表)



## 第 1 章 序 論

오늘날 世界에는 2 個의 獨逸, 2 個의 韓國, 2 個의 「베트남」, 2 個의 中國, 2 個의 「예멘」等 多數의 分斷國이 存在하고 있다.

英國 前植民地 印度가 1946年 印度와 「파키스탄」으로 兩分되고 다시 「파키스탄」이 1971년의 戰爭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分割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新生獨立國들이 政治的 統一을 實現 내지 再實現함에 있어서 當面하고 있는 諸問題點의 典型的인 例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1) 政治的 統一現象에는 多數의 要因이 作用하기 때문에 國家를 統一 또는 分斷시키는 原因이 무엇이나하는 問題는 풀기 어려운 問題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 要因은 政治的 分斷이 獨逸의 경우에서 처럼 敗戰의 結果로 또는 2次大戰後 韓國의 경우에서 처럼 戰爭과 관련을 갖는 狀況으로 말미암아 外部로 부터 強要된다는 事實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分斷 韓國을 統一하는 問題는 起源을 달리하는 2 個의 異質的 社會를 統合하는 過程을 새로이 着手하는 問題가 아니라 單一民族 社會의 分斷部分을 하나의 政治單位로 再統一 내지 再結合하는 問題이다. 그러나 이 課業이 반드시 보다 수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分斷 韓國의 두 部分은 反目하는 相違한 理念的 社會的 體制의 支配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3) 國土分斷 27年동안에 南北韓에는 自体統治의 永統化에 関心을 集中해온 政權이 登場했으며 執權者들이 政治的 統一達成을 위해 그들의 權力을 拋棄할 것

같지는 않다. 再結合의 念願은 「엘리트」層과 國民大衆에서 共히 強烈하고 広範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韓國再統一에 관한 執權「엘리트」의 認識과 期待는 그들의 確固한 政治的 支配를 自進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犧牲적이고 高尚하지 않을런지 모른다. 4)

分断國의 再統合내지 再統一問題에 관한 著述은 皮相的인 水準의 것을 除外한다면 거의 없는 實情이다. 5) 一國內에서 또는 諸國간에 地域的 水準에서 共同體를 統合하는 問題에 관한 文獻은 豊富하다. 6) 地域的 또는 全世界的인 國際的 統合은 分断國의 再統合 또는 再結合을 完全히 說明하는데 關係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充分하지 않다. 最近 國際統合論의 根底에는 적어도 4個의 模糊性이 가로놓여 있다고 指摘되고 있다. 즉 (1) 過程 또는 條件으로서의 統合의 模糊性 (2) 交流를 統合으로 다루는 傾向 (3) 「엘리트」統合과 國民大衆統合을 分揀하지 않는 점 (4)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및 社會的 統合의 模糊性이 곧 그것이다. 1971년 이래 進行되고있는 分断 韓國의 統一過程은 이같은 4個의 觀點에서 각각 評價될 수 있다.

본인이 이 討論會에서 하고자하는 바는 現在의 南北韓會談을 검토함으로써 分断 韓國의 統一過程과 結果에 관해 몇가지 問題點을 提起하고자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를 위해 國際關係論의 文獻을 검토하여 그 研究結果가 分断 韓國을 再統一하는 問題에 如何히 그리고 어느정도 適用될 수 있는가를 究明하는 接近方式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를

위해 3段階로 檢討하고자 하는바 첫째로 韓國의 經驗에 비추어 國際統合論의 妥當性을 검토하고 둘째로 現在의 南北韓 交流를 統一에 대한 機能的 接近方式의 觀點에서 分析하고 셋째로 新機能主義 및 聯邦主義와 같은 統一의 代案的 戰略을 檢討하고자 한다.

## 第2章 國際統合論의 妥當性 및 適用性

國際關係論에 있어서 統一에 관한 대부분의 論考는

① 世界統一 또는

② 地域的 統合을 如何히 達成하느냐하는 問題에 관한 것이다. 8) 世界統一運動과 地域的 統合運動의 根底에 놓여있는 前提는 다음과 같은 命題를 土臺로 한것 같다.

첫째 世界가 獨立民族國家로 分割되어 있다는 條件을 놓고 볼때 『部分과 조각』을 한데 結合시킨다면 世界平和大義에 보다 훌륭하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9) 둘째 科學과 技術의 힘(즉 通信과 交通手段)이 世界를 훨씬 좁혀주고 狹小하게함에 따라 人類의 政治的 心理的 統一의 必要性은 훨씬 커지고 있다. 10) 세째 오늘날 世界의 民族主義와 主權의 現實은 民族國家들간의 協力을 위한 보다 큰 體制를 成就하는데 障礙物이 될런지 모른다. 11)

世界統一과 地域統合의 目標을 達成함에 있어서 國際關係를 研究하는 學者들은 現存하는 政治單位들을 보다 큰 共同體로 統合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多數의 條件과 要因을 究明하고자 한다.

적어도 3個의 主要한 統合過程의 要素 내지 變數가 究明되었는바 즉,

① 相互連帶性

② 背景條件 및

③ 交流過程이 그것이다. 12)

첫째로 2個以上の 國家의 「엘리트」 및 國民大衆에서 相互連帶



感과 關心의 共有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地理的 隣接性 共通의 文化 또는 類似한 歷史的 經驗등과 같은 有利한 背景條件이 存在해야 한다. 셋째로 具體的인 相互關心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國民 兩者 共히 그 相互間에 旅行 및 貿易과 같은 交流度가 날로 增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13) 이같은 모든 要素는 分斷된 國土를 再統一하려고 함에 있어서 2個의 韓國의 實情에 有利하게 適用되는것 같다.

그러나 韓國의 事情을 國際統合의 全般的인 事情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外勢에 의해 제멋대로 分斷된 國民을 『再聚合』 내지 『再結合』하는 問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4) 이같은 점에서 韓國은 다른 分斷國들과 함께 共通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統一을 위해 必須的이라고 간주되는 背景條件의 高度한 類似성과 兩立性이 存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많은 分斷國 가운데에서도 特異한 狀況을 露呈하고 있다. 2個의 韓國은 이미 共通의 言語 人種的 同質性 및 單一文化와 같은 一聯의 有利한 背景條件을 共有하고 있다. 「엘리트」와 國民大衆의 統一念願 역시 매우 높고 強烈하다. 南北韓 國民은 또 많은 問題에 關係 반드시 共通의 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共通의 期待를 품고 있다. 15) 서울政府와 平壤政權은 具體的인 問題의 解決에 대한 相互 關心과 利害關係를 調整하기 위해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 一聯의 措置를 開始했다.

그러므로 外面的으로 볼때 分斷 韓國의 統一은 必然的인 結論인 듯 보인다.

韓半島에는 完全無欠한 統一을 위해 必要한 모든 要素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韓國의 統一은 自動的 過程이나 容易한 課業으로서 當然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分斷 韓國의 두 部分간의 계속적인 對話와 交流의 結果로서 비로소 實現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面에서 韓國의 事情은 統一을 위해 有利한 背景『條件』들이 2個의 政權主役간의 一聯의 積極的인 措置와 交流『過程』으로 實踐되어야 할 必要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分斷 韓國의 統一過程에 대한 第2, 第3의 接近方式의 妥當性を 檢討하기 앞서 우리는 統合論의 具體的 要素들이 어찌하여 韓國의 경우에 額面 그대로 適用되지 못하는가를 究明하기 위해 統合論의 具體的인 要素들을 敷衍해야만 할 것 같다.

國際的인 地域統合에 관해서는 優秀한 研究論文이 많이 있다. 16)

最近에는 重要한 研究結果의 일부를 條理整然한 一聯의 命題들로 整理하려는 努力이 기울여지고 있다. 17) 본인은 便宜上 한가지 特定한 文獻으로서 簡潔明瞭한 說明과 要約으로 注目을 받고있는 「코브」(Coff)와 「엘더」(Elder) 共者에 依存하고자 한다. 18)

「코브」와 「엘더」는 全世界的인 標本으로서의 49個國과 北大西洋標本으로서의 15個國에 관한 經驗的 分析을 바탕으로하여 相互連帶性 背景條件 및 交流過程의 3個 獨立變數간의 相互關係形態를 검토했다.

이들은 分斷 韓國을 統一하는 問題에 다소 關聯性을 갖는 多數의 興味있는 研究結果를 提示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北大西洋 地域의 地域的 研究에 있어서는 國民의 交流(觀光旅行 學生交換 등) :

보다는 通信과 物資交流(貿易, 書信, 電報등) 間에서 相關關係가 보다 높으나 全世界的인 体制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도않다고 발표하고 있다. 19) 이같은 研究結果는 現在의 南北對話가 離散家族의 再會를 實現시키려는 赤十字會談努力과 같은 國民의 交流가 아니라 物資交流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가? 아니면 2個의 韓國의 事情은 家族再會와 交換訪問이 書信과 物資交流에 先行되어야 하는 特異한 狀況을 提起하고 있는가?

「코브」와 「엘더」는 또 地理的으로 보다 隣接해 있는 國家들은 全世界的 体制에서 보다 큰 相互連帶性을 보여주는 傾向이 있으나 北大西洋地域에 있어서는 隣接性和 接境이 相互連帶性의 樣態을 豫測하는데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發表하고 있다. 20) 이같은 研究結果가 韓國의 經驗에 대해 갖는 含蓄的 意味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地理 그 自体가 分斷 韓國의 統一의 結果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地理上의 共通國境線 共有가 指導層에 의해 南北韓의 相互利益을 위해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의 다른 研究結果로서는

- ① 보다 큰 共通의 歷史的 屬性을 지니고 있는 경우
- ② 文化, 社會經濟的 發展 및 社會福祉政策의 面에서 보다 同質的인 경우
- ③ 軍事的 經濟的으로 보다 強力하고 行政官僚的 能力面에서 보다 類似할 경우에는 全世界的 体制에서는 相互連帶性和 交流가 보다 크다는 것이다. 21) 이같은 命題들은 각각 2個의 韓國을 統一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그 妥當性和 適用性이 檢討될 수 있다.

分断 韓國을 統一하는 方法으로서의 現南北對話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갖는 가장 興味있는 研究內容은 2個 國家간의 交流規模를 增大시키는 問題에 관한 것이다. 「코브」와 「엘더」는 2個國이 相互間에 連帶性이 크면 클수록 兩體制에 있어서 附隨的인 政府間 協力度가 그만큼 더 커진다고 報告하고 있다. 22) 韓國과 관련하여 본 이같은 研究結果의 意義는 서울과 平壤간의 現在의 政府間 「레벨」의 協商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계속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그리고 2個의 韓國이 社会的 實驗의 모든 側面에서 보다 類似해지면 해질수록 相互協力과 交流의 可能性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面에서 行政力強化와 政治構造簡素化를 目的으로한 韓國에 있어서의 最近의 改憲措置는 特別한 意味와 意義를 지니고 있다. 23) 서울과 平壤은 兩者 共히 祖國 統一課業을 成就한다는 名目下에 內政과 社会生活与件을 同一化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는것 같다.

### 第 3 章 國家統一의 機能的 接近方式

統一을 위해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두가지 方途가 南北韓에 의해 追求되고 있다는 事實은 統合과 統一의 戰略問題를 究明함에 있어서 重要的 意味를 갖고있다. 2個의 韓國은 赤十字會談이라는 非政治的이고 人道的인 活動에 관한 이른바 機能的 方途를 實驗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 本質적으로 双務的인 政治協議를 實驗하고 있다. 24) 두가지 會談이 同時에 併行되고 있다는 事實은 重要的 懸案問題들에 關係 合意를 본다는 面에서 成果가 있는것으로 判明될런지 모른다. 2個의 「채널」간에는 이미 去來가 있는것 같다. 예컨대 1972년 10월末 平壤에서 열린 第3次赤十字會議에서 激論의 대상이 된 宣傳事務所設置問題가 그후 韓國代表團이 平壤을 방문,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 참석하고은뒤 圓滿하게 妥結되었다.

2個의 韓國간의 交流의 動態와 人道的 및 政治的 問題에 관한 同時協商戰略은 韓國의 事情이 國際統合의 機能論에 바치는 特異한 貢獻이 될런지 모른다. 機能主義에 관한 文獻은 人間行動의 政治的, 非政治的 分離性問題에 相當한 關心을 보이고 있다. 25) 機能論者들은 政治問題와 福祉를 分離할 수 있으며 그리고 非政治的인 機能的 領域에서의 協力措置를 增進하는 것이 統合과 平和의 基礎를 建設하는 올바른 方途이며 戰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 反面에 機能主義批判者들은 分離可能說은 옳지못하고 非現實的이라고 反駁하고 있다. 27) 이같은 論爭은 理念的 土台위에서 展開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分離可能說의 諸問題를 一挙에 確乎하게 解決 지으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新機能主義者들은 國際活動의 政治的 領域과 機能的 내지 技術的 領域의 分揀을 維持하는것이 分析的으로 可能할 뿐만 아니라 方法論的으로도 便利하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28) 韓國의 경우는 統一過程의 2個 領域의 分離 즉 具體的인 問題에 관한 人道的인 赤十字會談과 政治的인 協議會談이 相互 密接한 關係를 갖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兩者는 獨特하고 補強하는 傾向을 대고 있다. 韓國의 協商에 있어서는 機能的 領域과 政治的 領域이라는 2個 領域간의 動的 交流의 法則이 効力を 보이고 있다는 몇가지 示唆가 엿보이고 있다. 離散家族再會에 관한 赤十字會談은 2個의 韓國政府의 機能的 人道的 協力과 活動으로서는 下級水準으로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이 서울과 平壤의 政治的 斷案과 默認이 없이 崩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南北共同聲明 특히 調節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는 赤十字會談의 進展으로 因해 促進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7월의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는 보다 高位層에서의 政治協議로서 이는 赤十字會談보다 더 微妙하고 덜 開放的이다.

赤十字會談이 처음부터 國民의 關心을 보다 많이 끌고 또 調節委員會의 다소 차분히 가라앉은 政治的 行政的 協商보다 더 興奮을 자아내는 傾向이 있었던 것은 異常한 일이다. 그러나 調節委員會會談이 앞으로 계속 進行 되면서 重要하고 微妙한 많은 問題들에 관한 協商을 활짝 쫓아보이게 되면 그 樣相은 변할런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南北對話의 經驗은 다소 理論的 重要性和 關聯性을 갖는 多數의 興味있는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赤十字 會談은 韓國에 있어서 두 赤十字社協商代表團간의 協力の 精神과 習性을 培養했다고 말해도 無妨할 듯 하다. 赤十字會議의 雰圍氣와 經驗이 國際的인 政府間 協力이라는 政治的 領域으로 넘쳐 흘러 들어가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招來하도록 作用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南北調節委員會는 政策指針과 細部事項을 示達하면서 赤十字會議을 支援 補強하는 作用을 하느것 같다. 事實 南北調節委員會의 이같은 指導役割은 그 1.2次會談이 끝난뒤 記者會見에서 調節委共同委員長인 韓國의 李厚洛中央情報部長과 北韓의 朴成哲에 의해 強調되었다. 이같은 意味에서 韓國의 統一問題를 妥結하고자함에 있어서는 統合과 統一에 대한 機能的 接近方式과 政治的 接近方式이 密接하게 作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經驗은 統合과 統一에 관한 機能論의 全般的인 發展에 關聯性이 있는듯 하다. 29)

## 第4章 新機能主義와 그 適用

統一成就를 위한 南北對話에 관한 韓國의 經驗은 機能的 統合過程으로부터 發生하고 있는 몇가지 問題點을 分明히 究明함에 있어 敎示하는바 크다. 新機能主義學派의 많은 學者들은 統合過程에는 많은 形態와 種類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나이(Nye)는 區別할 必要가 있는 적어도 4가지 次元의 統合 즉 政策統合 制度的 統合 見解統合 및 安保共同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提示하고 있다.<sup>30)</sup> 그는 또 3가지 形態의 統合 즉 經濟的 統合 社會的 統合 및 政治的 統合을 区分하고 있다.

서울과 平壤指導層은 統一過程의

① 政策次元과

② 制度的 次元의 区分을 維持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이들은 또 離散家族再會에 관한 赤十字會談과 같은 『社會的』 形態의 問題解決과 南北調節委員會活動과 같은 統一問題에 관한 『政治的』 協議를 区分할 必要性이 있음을 認識하고 있는 것 같다.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은 韓國統一達成의 諸原則과 方法을 明示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歷史的 意義를 갖는 重要한 文書이다.<sup>31)</sup> 이는 南北韓指導層이 分斷된 國土를 再統一하는 課業을 實踐함에 있어서 그들의 政策을 『統一』하고 『調節』하겠다는 約束으로 풀이될 수 있다. 共同聲明에서 第1項으로 採択된 韓國統一의 3個原則은 統一을

①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② 『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

③ 『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 達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지금까지 相互 反目하고 不信해온 2個의 政權이 이같은 原則을 相互 相對方에 대한 統一政策의 基礎로 受諾하게 되었다는 것은 刮目할 만한 일이다.

共同聲明 발표 후 서울과 平壤間에는 合意事項의 主要 規定의 하나를 實踐하기 위하여 즉 『合意事項을 實踐하고 統一 問題를 포함한 諸般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도록 南北調節委員會를 設置하기 위해 一聯의 協商이 더 開催되었다. 韓國의 李厚洛部長과 北韓의 朴成哲을 각각 團長으로 하는 南北韓高位代表團이 10월과 12월 초에 서로 交換訪問을 했다. 南北調節委員會가 正식으로 発足하고 調節委員會의 機能을 円滑하게 하기 위해 共同事務局을 設置한다는 合意가 이루어진 것은 1972년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調節委員會委員長 第3次會議에서 었다. 34

南北協商의 意義와 지금까지의 그 実績에 關係 明確한 評價를 내리기는 時機尙早인듯 하다. 그러나 人間의 心性은 지금까지의 經驗을 바탕으로하여 概略的 判斷을 내리고 싶어하는 법이다.

지금까지의 韓國의 經驗은 政策水準에서 統合의 출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統一의 基本原則에 關係 合意가 있을 수 있으며 南北調節委員會는 『政治的 統合』이 進展되고 있는 証拠로 해석될 수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 같다. 만일 共同事務局이 그 課業을 적극 遂行한다면 우리는 또 『制度的 統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는 것을 目擊할 가능성이 크다. 1972년 11월末 서울에서 開催된 第4次會議에서 合意된 板門店의 赤十字共同事務所의 活動과 함께 共同事務所와 南北調節委員會라는 機構는 韓國統一達成을 위한 將來의 協力과 共同努力을 위해 그 基礎作業을 하는데 重要的 것으로 判明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雙方協商이 成功이었다고 認定한다고 하여 그 것이 前途에 가로 놓여있는 엄청난 難關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南北調節委員會와 그 共同事務所이 어떠한 種類의 課業과 權限을 맡아 遂行할 것인가는 아직 두고볼 問題이다. 지금까지의 南北對話의 經過는 단순히 南北韓政府가 共同事業을 遂行하고 統一問題와 관련되는 具體的인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한 協議節次를 制度化하기로 合意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共同事業으로서 可能的 領域에는 緊張度와 軍事的 對峙狀態의 緩和, 經濟交易協力の 增進, 藝術家의 文化的 交流, 情報 및 「스포츠 팀」交流 書信과 訪問者交換을 위한 節次등이 포함되고 있다. 33)

雙方이 서로 相對方의 弱點을 利用하려고 努力하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課業의 일부 또는 전부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接觸과 交流의 具體的인 行爲에 앞서 먼저 信賴와 信用의 回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面에서 交流가 반드시 統合을 招來하지 않는다는 警戒는 妥當性과 重要性을 띠고 있다. 34) 見解統合이 機能的 協力과 統合過程에 先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最小限 併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35)

끝으로 어떠한 것이 앞으로의 韓國을 위한 適切한 形態의 統一 이냐하는 窮極的인 問題가 있다. 이러한 모든 機能的 協力行為는 具體的인 問題들을 妥結함에 있어서 단지 目的을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韓國統一을 窮極的으로 嚮導하는 過程에 불과하다. 金日成은 分斷 韓國의 統一을 招來하는 滿足할 만한 解決策으로서 聯邦制를 提唱하고 있다. 이같은 面에서의 朴正熙 大統領의 公式路線이 무엇인가는 分明하지 않다. 36) 아마도 新設된 統一主體國民會議는 朴大統領政府가 採択하게 되는 決定과 計劃은 그 무엇이건 이를 正當化시키는 措置를 취할 것이다. 現在의 示唆로 보아 서울政府는 韓國統一達成을 위한 漸進的이고 長期的인 接近方式을 원하고 있는것 같다.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에 立脚한 北韓의 統一認識은 이를 韓國政府의 보다 現實的이고 實際的인 接近方式과 對比하여 慎重하게 料量하고 저울질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37) 서울의 戰略成敗는 적어도 2個의 要因에 左右된다. 첫째로 長期戰略을 취하도록 平壤을 說得할 수 있는가? 또는 특히 金日成이 朴大統領보다 6年 年上이라는 점에서 볼때 金日成이 것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겠는가?

둘째로 東「아시아」의 權力政府狀況이 統一을 指向하는 2個의 韓國의 措置를 계속 容納하고 聲援할 것인가? 日本 中共 美國 蘇聯등 隣接國家들은 현재 韓國統一을 露骨的으로 反對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韓國統一은 現狀變化를 招來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勢力均衡狀態가 變貌하는 경우 일부 國家의 利害關係가

앞으로 韓國統一에 의해 惡影響을 받게될런지 모를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韓半島 統一은 점점 더 成就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요컨대 現在의 南北協商에서는 韓國統一의 時期調節이 가장 重要할 것 같다.

< 註 解 >

- 註 1) 新生國家들이 「유럽」의 支配로부터 脫皮하는 過程은 「에머슨」(Emerson) 과 「루퍼트」(Rupert) 共著 『帝國으로부터 國家로』(「하바드」大學校出版局, 「캠브리지」 「마사추세츠, 1960년) 에서 簡潔明瞭하게 記述되어 있다.
- 註 2) 2次大戰後의 韓國分斷의 起源에 關係서는 趙순성著 『世界政治속의 韓國; 1940-1950』(「캘리포니아」大學校出版局, 「버클리」, 1967년) 을 參考할것
- 註 3) 南北韓의 二 體制의 比較는 韓培浩의 『南北韓政治體制의 比較分析』(「아시아」研究「저널」 15卷, 1972年 3月) 에 잘 記述되어 있다.
- 註 4) 1972년의 統一問題에 關한 黨「엘리트」의 認識은 길영환의 『黨「엘리트」의 指導力과 反對役割認識』(「아시아」研究協會의 1973년도 年例會議에서 發表) 에서 간단히 檢討되고 있다.
- 註 5) 例컨데 獨逸統一에 關係서는 「한스 J. 모겐소」의 『獨逸統一의 問題點』(美國政治社會科學協會誌 330卷 1960년 7월) 을 參考할것. 「에치오니」(Etzioni) 의 著作은 分斷國統一 問題를 그 自体로서 다루고 있지 않다. 「에치오니아」 「아미타이」(Amitai) 共著 『政治的 統一』(「홀트라인 하트 앤드 윈스턴」出版社, 「뉴욕」, 1965年)
- 註 6) 예컨데 「J. 제이콥」과 「J. 토스카노」編著, 『政治社會의 統合』(「리핀코트」出版社, 「필라델피아」, 1964年) 「칼도이취」

等; 『政治社会와 北大西洋地域』 (『프린스턴』大学校出版局, 『프린스턴』, 1957년), 『비른스트·하스』著 『『유럽』의 統一』 (『스탠포드』大学校出版局, 『스탠포드』, 1958년) 등을 参考할것

註7) 『제임스 A. 로빈슨』編 政治学会誌 3卷 - 1972 (『봄스·메릴』出版社, 『뉴욕』, 1972년, pp. 281-338) 중의 『페더·에드윈』 및 『프레드릭·피어슨』의 『國際統合의 4個模樹性』

註8) 法的 性向의 世界聯邦主義運動과 같은 初期学派의 汎世界的 호소는 보다 社会科学志向의 関心을 보인 地域的 統合主唱者 들에게 점차 자리를 물리게 되었다.

註9) 에컨데 J.S. 나이 著 『分割속의 平和; 地域機構에서의 統合과 葛藤』 (『브라운 앤드 컴페니』, 『리틀 보스턴』 1971年) 을 参考할것

註10) 에컨데 『라인홀트·니이버』著 『光明의 아이들과 暗黒의 아이들』 (『찰스스크라브너스선스』出版社, 『뉴욕』, 1959년) 를 参考할것

註11) 『데이비드·미트라니』著 『実効性있는 平和体制』 1943, 1966년

註12) 『칼도이취』著 『國際的 水準의 政治共同体; 定義와 測定의 諸問題点』 (『다블데이, 가든시티』, 1954年)

『칼도이취』著 『民族主義와 社会的『컴뮤니케이션』 (MIT 出版局, 『캠브리지』, 1966년)

註13) 『유엔』總會는 1972년 12월의 決議를 통해 世界觀光旅行

을 重要한 關心事의 하나로 認定하고 있다.

註 14) Z. 브레제 쾨스키 教授는 1970年 韓國統一을 追求하는 適切한 焦點으로서 統一이 아닌 「再結合」의 過程을 強調했다.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國際會議의 進行節次』(서울, 1971年)를 參考할것

註 15) 27년간의 分断은 南北韓國民간에 心理的 疎外狀態를 招來했다. 南北韓國民간의 唯一한 共通分母는 먼 將來에 있어서의 韓國統一에 관한 念願과 期待를 같이 갖고있다는 점인것 같다.

註 16) 既히 引用된 文獻外에도 L. 린드버그著 『유럽經濟統合의 政治的 動學』(「스텐포드」, 1963年) 과 J. 나이著 『國際政治共同體』(앵커, 가든시티 1966年) 의 “東「아프리카」經濟統合”을 參考할것

註 17) 에컨데 케터와 피어슨; OP. Cit

註 18) 「코브」, W. 로저 및 「찰스넬더」共著 『國際共同體; 地域的 世界的 研究』(홀트·라인하트·앤드·윈스턴), 「뉴욕」, 1970年)

註 19) Ibid , 134-5

註 20) Ibid

註 21) Ibid

註 22) Ibid

註 23) 1972年 10월 17일 朴正熙大統領은 表面上으로는 政治體制의 急激한 變革을 實現시키기위해 戒嚴令을 선포했다. 그후 國民

投票에서 승인된 改憲은 소위 統一主体国民會議를 規定하고  
朴大統領의 地位를 強化했다. 일부 「움저버」들은 韓國의 새  
로운 政治体制는 国民會議형태의 統治面에서 보아 北韓의 蘇  
聯式 統治형태와 類似한바 없지않다고 보고 있다.

註24) 國際的 統合에 대한 機能的 接近方式의 說明을 위해서는

「미트라니」의 OP. Cit와 제임스 P. 세웰著 『機能主義와  
世界政治』(「프린스턴」大學校出版局, 「프린스턴」, 1966년)  
를 參考할것

註25) 예컨대 「이니스·L. 클로드」著 『보습속의 劍; 國際組織의

諸問題點과 發展』(「랜덤 하우스」 「뉴욕」 1964年) pp.318  
-343을 参照할것

註26) 이같은 立場의 主代弁人은 「미트라니」, OP. Cit

註27) 예컨대 「클로드」의 Op. Cit를 參考할것

註28) 「에른스트 B. 하우스」著 『民族國家를 超越하여』(「스텐포  
드」大學校出版局, 「스텐포드」, 1964年)

註29) 韓國의 經驗의 理論的 意味에 관한 問題는 앞으로 出版될  
『韓國과 統一의 政治學』에서 더욱 仔細히 敷衍될 것이다.

註30) 본인은 다른 곳에서 7.4 共同聲明을 자세히 檢討했다. 김영환;

『南北關係; 統一?』(1972年 11월 10-11일 「미시간」州  
「칼라마」주에서 열린 第4次韓國會議에서 發表)

註32) 東亞日報, 1972年 12월 2일자

註33) 南北韓간의 機能的 協力에 관한 具體的인 提案을 위해서는

『南北再結合』에 대한 機能的 接近方式』(北韓卷1, 10号



1972年10月)을 参考할것

註34) 「피더」와 「피어슨」, Op. Cit

註35) 나이, 『分割속의 平和』 p.49

註36) 서울政府는 韓國의 中立化案을 분명히 反對하고 있다. 北韓의 聯邦制案이 韓國에 受諾될 수 없는 理由의 明瞭한 分析을 위해서는 咸秉春의 『聯邦主義; 韓國의 國家統一을 위한 方法』 (國際會議의 進行節次, Op. Cit pp. 937-949)을 參考할 것

註37)本人은 다른곳에서 南北協商行態를 자세히 분석했다. 길영환의 南北關係 Op. Cit pp.15-18, 또 길영환의 『強大國和解에 대한 韓國의 反應』 (영, C. 김編; 『強大國과 韓國』 韓國問題研究所, 「실버스프링」, 1973年)

